



THEME STORY

아트뷰의 시각으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VIEW

작가의 프레임 속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무대 위 재해석된 움직임으로, 때로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변주합니다. 낮은 감각으로 공간을 유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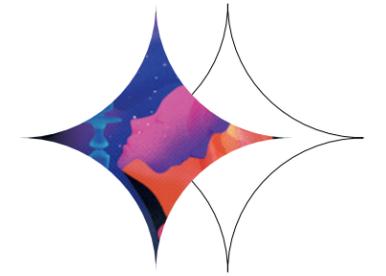
ART CURATOR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여정은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끕니다.



BEYOND SEONGNAM

지역예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 성남 그 너머의 본질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 예술가와 예술가 사이 경계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깊이보기
오페라 <라 보엠>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문화적 힘에서 비롯되다



프로젝트
청년예술창작소: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슬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주)유엔젤 제작감독
오종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삼/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회
前 국사편찬위원회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故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호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수도경연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길복/이상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김종술/민안선 (주)에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지과의사협회장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영수/원종순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중현/정송희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김진환/이화용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주)유엔젤 제작감독
오종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삼/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회
前 국사편찬위원회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지은/김순진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이호순/김영순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삼규/정효정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엔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김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철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극 대표 / 명당환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문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 색>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문화재단 이사장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병오/박종길 (주)상화 F&F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가림산업 대표이사 회장
허용무/구은희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故허 참/홍재자 (주)케이씨피 대표
황광석/조영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인 회원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까지회원
장미영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전동욱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호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지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기부회원

OPERA
LA BOHÈME
라 보엠

2022.12.9 FRI - 10 SAT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B 2만원 | 문의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ORCHESTRE NATIONAL
 CONDUCTOR AZIZ SHOKHAKIMOV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노 알렉산드르 칸토로프 지휘 아지즈 쇼하키모프

2022.12.16.FRI 7:30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R 16만원 | S 10만원 | A 6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마리네 콘서트

MUSIC FROM THE FAIREST ISLE

2022년 3월~12월(총10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2월 15일(목)
캐롤의 나라, 영국

홀스트 - 성 바울 모음곡
G. Holst - St. Paul's Suite, Op.29, No.2

홀스트 - 쓸쓸한 겨울에
G. Holst - In the bleak midwinter

앤더슨 -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L. Anderson - A Christmas Festival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데이비드 이
테너 홍민섭

2022.12.14 WED 8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주최 (재)성남문화재단 티켓 R 6만원 S 4만원

예매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인터파크 티켓 1544-8117 문의 031-783-8000



ANICKAYI

불안정한 균형



과학과 예술의 밀접한 관계 맺음은 예술가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도록 이끌었다. 패션계에서 아름다움을 구축해오던 아니카 이Anicka Yi는 마흔 살에 새롭게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서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인공지능 등 과학 분야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과학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두고, 보다 확장된 소재로 자신만의 실험적인 설치 작업을 선보이더니 여기에 '향'이라는 후각적 요소까지 더해 삶을 보다 실제적으로 감각하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박테리아에 관심을 가지며 인류 역시 진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했고, 상생과 공존에 관하여 고민하기에 이른다. 100명의 여성으로부터 DNA를 채취하고 박테리아를 배양해 개미의 집단적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시마로 만든 고치 속에 박테리아 배양균을 주입한 뒤 시 곤충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과학 기술은 그녀에게 시각을 환기하고 새로운 경계를 탐험하도록 이끄는 매개가 되었다.

그렇게 시공간이 다양하게 교차된 프레임 속에서 삶의 잠재력과 불안정함을 탐구해온 작가는 다음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된 적이 없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다.

갤러리에 설치된 구형의 작품 표면에 녹색과 금색의 빛을 비추니 흡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중 생물처럼 다가온다. 그렇게 바다로부터 출발한 원시의 시대를 상기하며 인류와 동물, 그리고 식물 사이 경계가 용해된 지점에 도달한다. 자연의 상태는 항상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식물의 표면은 동물의 살결을 모방하고, 같은 선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그녀가 창조한 낯선 생태계는 그렇게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글 임보연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사진 제공 글래스드론 갤러리

THEME STORY



04 인사이트

- 10 **미리보기**
송년의 달, 음악의 순간들
성남아트센터 12월 공연 모음
- 14 **인터뷰**
개성으로의 초대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토로프
- 18 **인터뷰**
음악은 공감의 예술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VIEW



- 24 **깊이보기**
기쁘고도 슬펐던 젊은 날의 초상
오페라 <라 보엠>



- 28 **미리보기 1**
프랑스적 색채와
독일적 기능미를 겸비한 개성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30 **미리보기 2**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운 전통, 캐럴
마티네 콘서트: 12월
- 32 **미리보기 3**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을 만나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리의
Two Seasons
- 34 **다시보기 1**
열네 가지 위로의 방식
성남의 얼굴전 <위로>
- 42 **다시보기 2**
피아노로 구현한 오케스트라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ART CURATOR



- 46 **기술과 예술**
부채야, 바람이 부는 거야, 내가 부치는 거야?
아름다운 이미지, 세상을 바꾸다
- 50 **일상에서의 디자인**
몸짱
몸의 디자인을 말하다
- 54 **영화 속 클래식**
음악으로 전하는 서사
<하우스 오브 구찌>와 오페라 아리아
- 56 **BOOK**
커지는 미술 시장, 미술품 수집의 세계
이달의 책
- 58 **미술 길라잡이**
미술을 산다는 것
작품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이해하기
- 60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문화적 힘에서 비롯되다
소통의 가치에서 출발한 서울의 재생 프로젝트

BEYOND SEONGNAM



- 68 **프로젝트**
경계 너머의 예술을 꿈꾸다
청년예술창작소: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 74 **문화정책**
함께 그려갈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역 예술강사 지원과 네트워크
- 77 **캘린더**
- 78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송년의 달, 음악의 순간들

- 10 **미리보기**
송년의 달, 음악의 순간들
성남아트센터 12월 공연 모음
- 14 **인터뷰**
개성으로의 초대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캄토로프
- 18 **인터뷰**
음악은 공감의 예술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 MOMENTS • MUSICAUX

송년의 밤, 음악의 순간들

모두에게 여전히 쉽지 않았던 한 해가 저무는
지금,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모두가 음악으로 공감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선물 같은 음악들이 기다린다.



낭만적 피아니즘

12월의 시작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장식한다. 클래식계 ‘오빠부대’ 팬덤을 몰고 왔던 1세대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김정원은 독주와 협연, 라디오 진행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2월 8일, 그가 올봄 성남시 수정구에 새롭게 개관한 성남아트리움의 명품 클래식 시리즈로 오랜만의 성남 리사이틀 무대에 선다. 전반부의 리스트, 후반부의 쇼팽이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은 낭만 음악의 탁월한 해석자이자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찬사받던 김정원의 한결같은 피아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12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PIANO RECITAL



한겨울의 오페라

겨울에 어울리는 오페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12월이면 떠오르는 오페라는 단연 푸치니의 <라 보엠>이다. 19세기 파리,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난한 연인 미미와 로돌포의 사랑 이야기는 매년 이맘때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골 레퍼토리다.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국립오페라단의 <라 보엠>을 성남에서 만날 수 있다. 이미 국립오페라단과 수차례 호흡을 맞춘 지휘자 세바스티안 랑 레싱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고, 소프라노 서선영/이윤경이 미미 역을, 테너 강요셉/신상근이 로돌포 역으로 짧지만 순수했던 사랑을 노래한다.

12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 10일(토)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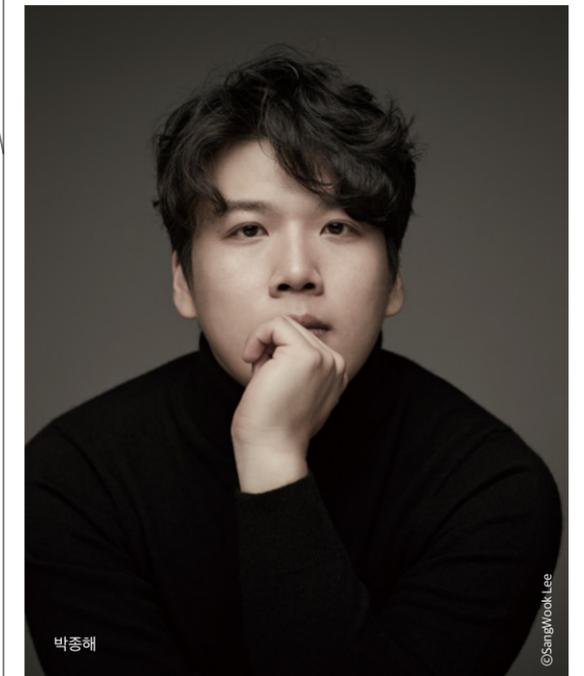
PUCCINI: LA BOHÈME

우정의 앙상블

2018년 게자 안다 콩쿠르 2위 입상을 비롯해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친구들>로 찾아온다. ‘친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음악을 듣기 전부터 신뢰가 간다. 2019년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데뷔 무대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비올리스트 김세준(북독일방송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첼리스트 김두민(뒤셀도르프 심포니 첼로 수석 역임)까지, 모두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서 활약 중인 든든한 음악가들이다. 박종해가 연주하는 바흐-캄프 ‘오소서 이방인의 구세주여’와 플레트노프가 편곡한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등에 이어, 브람스 피아노 4중주 1번이 네 사람의 우정 어린 앙상블로 펼쳐진다. 독주와 실내악 모두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12월 10일(토)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ENSEMBLE



박종해

©SangWook Lee



©Sasha Gurov

해외 오케스트라와 라이징 스타

오랜만의 반가운 오케스트라 내한 소식도 있다. 바로 167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의 공연. 프랑스 알자스의 주도 州都이자 독일 국경 지역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의 특성상, 오케스트라 역시 독일과 프랑스 양쪽의 전통과 색채감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2021/22 시즌부터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아지즈 쇼하키모프는 일찌감치 세계 유수의 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클래식계의 메인스트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는 젊은 지휘자로, 올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하며 국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번 내한에서는 비제 <카르멘 모음곡> 1번과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연주한다. 여기에 협연자로는 2019년, 22세의 나이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프랑스인 최초로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던 알렉상드르 캉토로프가 나선다. 당시 대중적인 협주곡 1번 대신 2번을 연주한 것으로도 이슈를 모았던 그는 대중성이나 유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특한 음악적 행보를 이어가는 독심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다. 이번 무대에서도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콩쿠르 파이널 무대의 감동을 재현할 예정이다.



아지즈 쇼하키모프
©Jean-Baptiste Millot

12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크리스마스와 탱고

가족과 연인 모두에게 부담 없는 송년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다음의 공연들을 눈여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크리스마스 지브리 탱고>로 겨울의 탱고 무드를 느껴보자. 탱고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간판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를 중심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피아노 그리고 비브라폰과 퍼커션에 탱고 댄서 2팀까지 함께한다. 1부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탱고'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아디오스 노니노' '리베르 탱고' 등 탱고 음악을, 2부는 <이웃집 토토로> <미녀와 야수> 등 익숙한 애니메이션 음악들을 새롭게 탱고로 편곡한 '탱고로 만나는 지브리&디즈니'로 꾸며진다.

12월 14일(수)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ADIEU



리처드 용재 오닐

©Sangwook Lee

편곡의 묘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송년 콘서트 <선물>로 찾아온다. 오닐이 음악계의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해온 <선물>은 2017년 이후 매년 다양한 구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송년음악회. 12월 24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올해 무대는 '탱고 피버'라는 부제로 오랜 음악 동료들과 조우한다. 첼리스트 문태국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반도네온 연주자인 줄리앙 라브로와 함께 피아졸라-바흐-비발디의 음악들을 새로운 편곡으로 들려준다.

12월 24일(토)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최하영

©Gata Rosa

송년의 밤

2022년의 마무리는 해마다 성남아트센터의 12월 31일을 장식해 온 송년음악회가 맡는다. 김덕기가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함께 2022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최하영이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협주곡>을, 소프라노 박미자와 테너 정호윤이 우리 가곡과 오페라 <리골레토>의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 때로는 위안으로, 때로는 치유의 시간을 선사해줄 이 모든 음악의 순간들 속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성악가의 아름다운 노래는 다가올 새해의 희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될 것이다.

12월 31일(토)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친구들

- 박종해, 피아노
- 박규민, 바이올린
- 김세준, 비올라
- 김두민, 첼로



BRAHMS, TCHAIKOVSKY-PLETNEV AND BRAHMS

PIANIST JONG HAI PARK & FRIENDS

PROGRAM

- J.S. Bach-Kempff
Nun komm, der Heiden Heiland / Siciliano
- J.S. Bach-Hess
Jesu, Joy of Man's Desiring
- Tchaikovsky-Pletnev
Concert suite from the ballet The Nutcracker
- J. Brahms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Op.25

2022년 12월 10일(토)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Libre de droit Sisha Guoy

● ALEXANDRE KANTOROW



개성이론의 초대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칸토로프

날마다 음악 콩쿠르를 통해 스타가 탄생한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콩쿠르의 우승이 그 이후의 커리어를 추구하는 데에 큰 도움은 되지만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다음이 중요하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우승자는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Andrei Gavrilov였고, 언드라시 시프 András Schiff는 4위에 머물렀다. 지금 누구를 기억하는가? 큰 콩쿠르에서 한 번 우승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모두에게 독약이다. 그래서 우승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늘 흥미롭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다.

알렉산드르 칸토로프. 1997년생으로 2019년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의 우승자이자 전 부문을 아우르는 최고의 영예인 그랑프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스타 탄생'이다. 하지만 러시아 콩쿠르에서 우승한 첫 번째 프랑스인(비록 부계가 러시아 혈통이긴 하지만)이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결선에서 연주해서 우승한 유일한 사례이다. 거기에 아버지 장자크 칸토로프 Jean-Jacques Kantorow는 바이올린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니 요즘 말로 음악계의 금수저쯤 된다. 실력과 환경이 뒤엎힌 여려모로 흥미로운 사례다. 4월 리사이틀, 7월 서울시향과의 협연에 이어 12월 16일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의 협연까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한국을 찾아오는 젊은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칸토로프를 이메일로 미리 만났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후에 무엇이 바뀌었나.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후는 항상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나는 열정적으로 이 세계를 탐사했다. 스케줄은 가득 찼고 무척 감사한 일이다. 객석에서 올려다볼 수 있었던 대단한 음악가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연주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자문하고 있다. 음악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은 예전보다 덜 학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편이다.

콩쿠르 무용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콩쿠르에 대한 생각은?

음악이라는 세계는 스포츠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젊은 음악가들에게 활동할 무대가 너무 없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유명해지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어릴 때부터 콩쿠르 없이도 유명해진 예브게니 키신이나 유자 왕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나는 부분적으론 집안 덕분에 콩쿠르 이전부터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경우다.

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선택했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존경하는 글렌 굴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등 위대한 음악가들

이 공연하고 녹음했던 역사적인 공연장인 모스크바 음악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는 점이였다.

결선곡으로 차이콥스키 협주곡 2번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는 나 역시 남들처럼 1번 협주곡을 연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몰입이 되지 않았다. 너무 이 곡의 연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만의 해석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다가 콩쿠르 6개월 전쯤 2번 협주곡을 발견했는데 바로 좋아졌다. 더욱 개인적인 음악이라 생각했고, 발레를 닮았다고 느꼈다! 2악장에서 독주자가 첼로에게 양보하는 패시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좋다. 장르의 혼합이 이 작품에 독특한 향기를 부여한다.

아버지 장자크 칸토로프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이다.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 성씨를 알게 되면 갑자기 호기심을 보이며 내 연주를 들으려고 했고, 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자주 겪은 걸로 보아 아버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두 스승, 이고르 라즈코 Igor Lazko와 레나 셰레셴스카야 Rena

Shereshevskaya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이고르 라즈코에게서 처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내게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을 생각해보라고 말해주었으며, 기초를 매우 충실하게 가르쳤다. 레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기초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들(손의 위치 등)을 섞어 가르쳤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 음악에서 본질적인 요소인 멜로디를 많이 들으라고 했다.

칸토로프는 콩쿠르에서 우승하기도 전에 BIS 레이블로 음반을 여러 장 녹음했다. 아버지가 지휘를 맡아서 2015년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을, 2017년 '러시아풍으로'라는 독주 음반을, 2019년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3~5번을 발매했고 우승 이후에는 브람스와 버르토크, 리스트 독주 음반, 브람스 작품들로만 이루어진 독집을 녹음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생상스 협주곡 1번과 2번을 녹음해서 생상스 협주곡 전곡을 완성했다. 음반들의 성과는 아버지 덕분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단호히 부인한다. 리뷰에서 몇 문장만 인용해보자.



"칸토로프는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터치로 가지고 있지만, 리스트가 포르티시시시모를 요구하면 스릴 넘치는 화려한 기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간다."(<그라모폰>) "브람스 리사이틀 앨범은 올해 최고의 독주 앨범이며, 피아노 애호가라면 필청의 음반이다."(<판파르>), "이슬라메이 연주는 가장 깔끔하며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베레좁스키의 음반에 필적한다."(<그라모폰>) "기교는 숨을 막히게 하지만, 전혀 조급하지 않다. 젊은 칸토로프는 위대한 연주자들이 그러하듯이 여유가 넘친다. 한마디로 생상스 협주곡 전곡 녹음은 비견할 녹음을 찾기가 어렵고, 더 뛰어난 녹음은 없다고 해도 좋다."(<BBC 뮤직 매거진>)

콩쿠르에 우승하기도 전에 레코딩을 했는데, 자주 연주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도 있었다.

생상스는 라벨이나 드뷔시만큼 중요하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위대한 작곡가로 인식된다. 생상스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작곡가로만 기억되지만 진정한 오케스트레이션 감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전곡을 한꺼번에 연주하는 일은 없지만 다섯 곡 각각은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 특별하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라 무척 즐겁고 한편으로는 모두 밝다. 내 취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아버지는 생상스의 작품을 무척 많이 녹음했다.

어릴 적에는 바이올린이 훨씬 가까웠을 텐데?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지만 피아노가 코드와 다성성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루바토도 바이올린에서처럼 느

끼게 되었고, 아버지의 연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휴지부에 관한 생각도 배우고, 기교에 관해서도 깊이 고찰하게 되었다. 나는 바이올린에서처럼 음들을 컨트롤하거나 비브라토를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올해에만 세 번째 방한이다.

한국 방문은 정말 재밌는 여행이다. 모든 게 매우 다른데, 특히 클래식 음악을 관객들이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신선하다. 음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 양 받아들인다.

음악 외에 무엇이 영감을 주는가?

러시아 문학, 특히 도스토옙스키를 무척 많이 읽었다. 영화도 좋아한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미하일 칼라토조프, 그리고 왕가위의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 음악 외에서도 영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2월 1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내한 공연의 지휘자는 30대의 젊은 지휘자 아지즈 쇼하키모프다. 2010년 구스타프 말러 지휘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한 그 역시 올해 서울시향의 객원지휘자로 쇼스타코비치 10번 교향곡을 지휘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아지즈 쇼하키모프·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와 자주 호흡을 맞추었다.

쇼하키모프와 연주하는 것은 정말 즐겁다. 몇 달 전에 라 로크 당테롱 La Roque d'Anthéron에서도 연주했는데 한 번에 두 개의 협주곡(차이콥스키 2번, 리스트 2번)을 연주했다.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내 또래의 단원들이 많아서 좋고, 음악원 시절부터 알던 단원들도 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좋다. 열정을 느끼며 함께 연주하니 음악적인 결과물 역시 무척 흥미진진할 것이다.

글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런던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했고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영거리 한국문화원에서 공연 기획과 홍보 업무를 진행했다.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재직 중이다.

• JEONG WONG KIM •



피아니스트 김정원

애환이 무감의 예술이다

지난해 국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피아니스트 김정원. 20여 년 전 오빠부대를 물고 다니던 영파위에서 이제는 중견 연주자라는 수식이 어색하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연주와 해설, 제작, 방송까지 넘나드는 그의 행보는 변함없이 활기차고 다채롭다. 12월 8일 성남아트리움 독주회를 앞두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과 믿음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김정원의 순간들을 들여다본다.

쉽 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독주회로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리사이틀 타이틀 ‘Klavipoesy - 피아노로 쓴 시’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색깔을 온전히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피아노 음악이면서도 한 편의 시와 같은, 감수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꾸며보고 싶었어요. 쇼팽이라 하면 누구나 ‘피아노의 시인’을 떠올리지만 리스트는 통념적으로 쇼팽과 대비되는 화려하고 기교적인 음악을 연상하는데, 이번에 소개할 리스트의 곡은 <장송>과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의 기도>처럼 종교적이고 시적인 감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크게 ‘쇼팽 & 리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선곡에 담긴 의미가 궁금한데요.

쇼팽과 리스트를 중심에 두되, 첫 곡은 애프터라이저처럼 모차르트의 <환상곡 3번 D단조, K397>을 선택했죠. 명랑하고 쾌활한 전형적인 모차르트가 아닌, 드물게 어둡고 시적인 감성의 곡입니다. 그 뒤로 리스트의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S.173> 7번 ‘장송 Funérailles’, 슈베르트-리스트의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의 기도 Litanei Auf Das Fest Aller Seelen, S.562>로 이어집니다. 슈베르트의 원곡도 종교적인 내용을 다룬 가곡이지만, 리스트 편곡에서는 더욱 장중한 맛이 살아 있죠. 마지막으로 쇼팽의 <환상곡>은 첫 곡이었던 모차르트 <환상곡>과 연결되며 1부를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쇼팽의 초기와 후기 작품이 대비를 이룹니다. 스무 살 청년 쇼팽이 파리에서 쓴 <녹턴, Op. 9>의 두 곡은 많은 분들이 쇼팽에게 기대하는 시적인 감성이 녹아 있죠. 개인적으로는 후기 작을 좋아하지만, 젊은 날의 쇼팽을 회상하듯 넣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쇼팽의 말년에 작곡한 <벧노래, Op.60>와 <환상

폴로네이즈, Op.61>입니다. 특히 <환상 폴로네이즈>는 고열에 혼수상태를 오가면서도 작곡을 이어갔던, 그야말로 정신적인 영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죠. 쇼팽 말년의 원숙함과 노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생일지라도 후기 작품이 지닌 깊이는 어느 작곡가든 남다른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후기’는 50대 후반이고 쇼팽이나 슈베르트의 ‘후기’는 한창 젊은 30대 시절이지만, 요절에도 불구하고 후기작이 지닌 원숙미는 부정할 수 없죠. 만약 그들이 더 긴 생을 누렸다면 얼마나 더 성숙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생의 길이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면, 그들의 예술성은 그 생의 마지막 앞에서 본능적으로 무르익으며 말년의 걸작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만큼 후기 작품들은 독보적인 무게와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쇼팽의 후기작 두 작품도 어떤 면에서는 초기작보다 가슴을 저미는 멜로디는 덜할 수 있지만, 힘을 뺀 상태에서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가 묵직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10대 시절부터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 2000년 쇼팽 콩쿠르 본선 진출 이듬해 국내 첫 독주회를 가지셨지요. 지난해 벌써 국내 데뷔 20주년을 맞으셨는데요, 몇 년 사이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제는 한결 편안함과 여유가 전해지는 인상입니다.

무대가 편안해지진 않았어요(웃음). 다만 예전보다는 저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해질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토닥토닥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JNO PARK

당시 국내 피아니스트 최초로 쇼팽 콩쿠르 본선 3차까지 진출하셨지요. 그때만 해도 국내 연주자의 입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이후에는 세계 음악계에서 한국인 연주자들의 위상도 달라지고, 주요 콩쿠르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실시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선배 연주자로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콩쿠르 생중계를 지켜보는 모습이 기쁘고 반갑죠. 오래전에는 정말 특별한 논란이나 이슈 없이는 탈락자가 주목받기 힘들었던 환경이었잖아요? 당 타이손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아르헤리치가 이보 포고렐리치의 탈락에 불복하며 포고렐리치가 스타덤에 올랐던 사건처럼 말이죠. 저도 쇼팽 콩쿠르 당시 파이널 진출 불발에 아쉬움을 피력해주시던 평론가들 덕분에 우승자 연주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무대가 유럽 연주의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스포츠처럼 수치로 순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심사위원의 견해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콩쿠르인데, 이제는 이런 변화 덕분에 꼭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기회가 열렸다고 봐요. 예선에서 마음에 와 닿은 연주자의 팬이 되기도 하고, 입상자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감동을 주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지 지켜보다 자연스레 '찐팬'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죠.

연주 외에도 교육자, 라디오 DJ, 진행자, 음반 제작자 등 다채로운 역할로 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계시죠. 진행, 또 해설자 역할이 주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 무대에서 연주하다 마이크를 잡고, 다시 연주를 하는 1인 2역이 어렵긴 해요. 다만 그만큼 보람이 크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에게 청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소수의 애호가만 감상하다 외면당하는 음악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청중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보람은 물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깨닫기도 해요. 결국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풍성해질 테니까요.

올봄부터 CBS 음악FM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DJ를 맡고 계십니다. 연주자의 생활 패턴이나 스케줄 등을 고려하면 매일 아침 생방송 진행이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처음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듭 정중히 제안을 주시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웃음). 이제 8개월째 접어드는데,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어요. 우선 연주자로서 드물게 아침형 인간이 되고(웃음) 의미 있는 오전을 보내게 됐죠. 사실 연습이며 일정에 쫓기다 보면 다양한 음악을 집중해서 듣거나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라디오 덕에 매일 차분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타인의 삶에 공감할 수 있어 감사하죠. 익명의 누군가에게 아픔을 톡 털어놓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는 청취자들과 서로 공감하며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제 이야기에 청취자들이 위로 받으시고, 그 모습에 저 역시 다시 에너지를 받는 선순환인 거죠. 연주도 결국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인데, 라디오 역시 사람 사이의 소통과 위로라는 점에서 닮은 부분을 느껴요.

언젠가 “슈베르트는 친구 같고, 쇼팽은 연인 같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편안한 작곡가, 혹은 깊이 공감하는 작곡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슈만에 공감해요. 슈만의 두 자아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처럼, 저 역시 남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술가 슈만의 자아와 삶에 공감한다면, 음악적인 공감은 브람스입니다. 연주와 감상 모두 제 음악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브람스는 언뜻 음악밖에 모르는 외골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인관계와 비즈니스에 능했던, 어떻게 보면 슈만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마 요즘처럼 MBTI를 따지면 E가 아니었을까요(웃음)? 그러면서도 음악의 내면은 깊이 있게 만들어갈 줄 알았던 작곡가였죠.

연주자로서 세월에 따른 노화, 또 그와 반대로 연륜이 더해지며 생기는 음악성의 총화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결국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풍성해질 테니까요.”

싶다고 하셨는데요.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첫 번째로 육체의 노화에 대비한 테크닉의 개발입니다. 근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손가락도 느려지는데, 젊은 시절처럼 근력에 의지해 친다면 쉽지 않겠죠.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정말 대단한 점이, '지금 그 나이에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말년의 미켈란젤리나 리히테르가 전해준 감동은 테크닉이 아닌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르헤리치는 테크닉 면에서도 여전하다는 점이 경이롭죠.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나이에 맞는 주법을 개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손가락이 느려진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과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노력이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보 시간에 여유를 갖고, 무리하지 않는 템포로 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는... 두 번째로,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변화에는 순응하되, 그럴수록 내면의 음악에 더 집중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테크닉과 별개로 '메시지를 지닌' 연주자가 되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국내외 예술가들 중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백건우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마음가짐은 존경할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경외감이 들어요. 말년의 라두 루푸는 젊은 시절의 테크닉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만의 톤 자체로도 엄청난 감동을 전해주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죠.

취미, 또 일상의 루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분들처럼 산책, 음악, 독서를 즐기고 영상도 보죠. 다만 음악도, 책도, 휴대전화도, 그 어떤 것도 없이 면벽수행 하듯 생각을 비우는 디톡스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꼭 가져요. 처음엔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종교는 기독교지만 불교 철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아침 6시 30분 기상 뒤에는 마음수양 검 운동으로 삼십 배를 올리고 방송국으로 출발합니다.

몇 년 전 수년에 걸쳐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 녹음과 연주를 진행하셨지요. 새롭게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슈베르트 소나타를 녹음할 때, 마치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중간중간 힘든 순간이 많았거든요. '전곡 연주'를 얘기하고 진행하는 동안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성남아트리움에서 만날 관객들에게 미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성남아트센터 무대는 종종 선 적이 있는데 성남아트리움은 첫 만남이네요. 올해 새로 생긴 공연장이고 이미 여러 연주자들이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이곳에서 저의 올해 첫 독주회를 열게 되어 더 기대가 커요.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정

JULIUS
JEONGWON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
KIM

KLAVIPOSEY : 클라비포에지



2022. 12. 8. THU. 7:30 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구 성남시민회관)

티켓 전석 3만원 시야장애석 1만원 | 입장연령 8세 이상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V I E W



Rose Wylie, Tale of Tales, Pink Castle (Film Notes), 2017, Oil on Canvas, 183 x 165 cm, Rose Wylie EDIT

- 24 **깊이보기**
기쁘고도 슬펐던 젊은 날의 초상
오페라 <라 보엠>
- 28 **미리보기 1**
프랑스적 색채와 독일적 기능미를 겸비한 개성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30 **미리보기 2**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운 전통, 캐럴
마티네 콘서트: 12월
- 32 **미리보기 3**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을 만나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리의
Two Seasons
- 34 **다시보기 1**
열네 가지 위로의 방식
성남의 얼굴전 <위로>
- 42 **다시보기 2**
피아노로 구현한 오케스트라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PUCCINI:

LA BOHÈME



©Ken Howard / Metropolitan Opera

기쁘고도 슬펐던 젊은 날의 초상

오페라 <라 보엠>

오페라 중에는 특정한 계절에 어울리는 작품이 있다. <라 보엠>이 그런 예여서 겨울철에 어울린다.

1막과 2막은 어느 크리스마스이브에 파리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3막 역시 아직도 춥고 눈 내리는 겨울 새벽이다. 마지막 4막만 겨울에서 벗어난 다음이다. 국립오페라는 물론 세계 오페라 극장계에서 12월에 특별히 인기가 높은 이유다.



preview

오페라 <라 보엠>

Production

지휘 | 세바스티앙 랑 레싱
연출 | 김숙영
무대 | 최진규
의상 | 박선미
조명 | 공홍표

Cast

미미 | 서선영, 이윤경
로돌포 | 강요셉, 신상근
무제타 | 박소영, 김유진
마르첼로 | 김기훈, 이승왕

연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메트로폴리탄합창단

12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10일(토)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1896년 2월 토리노 왕립 가극장에서 초연된 <라 보엠>은 자코모 푸치니 1858-1924의 네 번째 오페라로, 파리 대학가 라탱 지구의 예술가, 혹은 예술가 지망생들의 가난한 삶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보엠’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헤미안처럼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예술가들’이란 뜻이다. 시인 로돌포는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철학자 콜리네와 형편없는 옥탑방에서 집세도 밀린 채 지내는데,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래층에 사는 미미라는 처녀와 처음 만나게 된다.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두 사람은 뒷골목 삼답게 곧바로 살림을 차려버리고 친구들은 옥탑방을 비워준다. 문제는 미미가 폐병에 걸려 죽어가는 중이고 로돌포는 그녀를 위한 치료비를 마련하기엔 너무 가난하다는 점이다. 결국 둘은 헤어지고, 미미는 죽음을 맞이 직전에 로돌포의 옥탑방에 실려와 연인과 친구들 앞에서 숨을 거둔다.

앙리 뒤르제의 원작과 작곡 과정

이 오페라의 원작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나왔던 프랑스 작가 앙리 뒤르제 1822-1861의 『보헤미안의 삶의 정경』 1845-49이다. 몇 년간 문학 잡지에 연재된 23편의 짧은 이야기가 느슨하게 연결된 독특한 형식의 소설로, 주인공은 로돌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보헤미안, 즉 파리 뒷골목의 예술가 친구들이다. 가난한 청년 예술가들이 겪는 고단하지만 생기 넘치는 삶, 이들이 겪는 다양한 연애담,

그리고 결국은 모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다는 후일담으로 구성된다.

이 프랑스 소설에 먼저 관심을 보인 이는 오페라 <팔리아치>의 작곡자이자 푸치니와 친분이 있던 동년배 루제르 레온카발로 1857-1919였다. 글재주가 뛰어난 그는 푸치니에게 “내가 대본을 쓸 테니 자네가 작곡을 해 보게”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푸치니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레온카발로는 직접 작곡하기로 한다.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 푸치니는 일리카와 지아코사라는 두 대본가가 공동 작업한 리브레토를 받아 작곡을 마치고는 레온카발로보다 먼저 무대에 올랐다. 뒤통수를 맞은 레온카발로는 이때부터 푸치니와 말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토스카>의 작곡 과정에서도 일어났으니, 푸치니는 질투심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물론 그런 성격 덕분에 당대 어떤 작곡가보다도 큰 부와 명성을 거머쥌 수 있었다.

오페라 <라 보엠>은 원작 소설과 다른 점이 많다. 친구들 중 로돌포가 단연 중요하게 다루어진 점도 그렇다. 게다가 소설 속의 로돌포는 미미뿐 아니라 루이즈, 로르, 앙젤, 줄리에트란 여러 아가씨와 차례로 사귀다. 물론 미미가 가장 중요한 연애 상대였지만 오페라 내용처럼 한 여인을 위한 순애보는 아니다. 더욱이 미미와 로돌포가 하숙집 옥탑방에서 처음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소설 속 프랑신과 자크라는 다른 커플의 이야기를 차용

한 것이다. 계절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봄이다. 한편 1년 늦게 초연된 레온카발로의 <라 보엠>에서는 로돌포와 미미보다 화가 마르첼로와 그 연인 무제타 커플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데, 푸치니의 <라 보엠>이 원작 소설과도, 레온카발로의 오페라와도 다른 이유는 ‘새치기’에 대한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가슴 시리도록 슬픈 젊은 날의 초상

오페라의 주인공은 로돌포와 미미 커플이지만 마르첼로와 무제타가 또 다른 중요한 커플을 구성한다. 특히 둘 다 소프라노인 미미와 무제타의 캐릭터가 대조적이다. 우선 무제타는 돈 많은 남자에게 붙어서 호사스런 삶을 기대하는 유사(類似) 코르티잔이다. 19세기 프랑스에 많았던 코르티잔은 생활비를 대주는 후원자의 애인 역할을 하는 여인을 가리킨다. 창녀와는 다른 개념이다. 무제타는 마르첼로에게 돈만 생긴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늘 말다툼을 벌이게 되기에 다른 남자 곁을 떠돌기도 한다. 반면 미미는 당시 불치병이었던 폐병으로 건강을 크게 해쳐 자취방에서 뜨개질로 근근이 연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순수한 여인일까? 그녀의 노래 ‘내 이름은 미미’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원래 이름은 루치아인데 사람들이 미미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미미는 보통의 경우 여자 이름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귀여운 여인에 대한 애칭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미미도 어떤 형태로든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오페라가 실감나는 이유는 이렇게 마냥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 메트 오페라의 <라 보엠>. 로돌포 역의 비토리오 그리골로와 미미 역의 마리아 코발레프스카
2 메트 오페라의 <라 보엠> 1막 중 로돌포와 마르첼로. 로돌포 역은 라몬 바르가스가 맡았다

PUCCINI: LA BOHÈME

1막은 로돌포(테너)와 마르첼로(바리톤), 쇼나르(바리톤), 콜리네(베이스)의 네 친구가 함께 지내는 추운 다락방이다. 세 친구가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식사를 위해 로돌포만 남겨두고 먼저 나간 뒤 미미(소프라노)가 촛불이 꺼졌다고 방문을 노크한다. 미미는 시인이라는 로돌포의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을 들으며 가난해도 그럴듯해 보이는 남자에게 빠져든다. 노래 끝부분에 하이 C의 고음을 폭발시키는 것은 로돌포의 사랑이 그만큼 고조되었다는 상징이다. 그 답으로 자신은 수를 놓으며 살아가는 미친한 여자에 불과하지만 꿈은 많은 노래가 ‘내 이름은 미미’다. 로돌포는 미미에게 사랑을 느끼자마자 당장 침대에 끌어들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그녀가 로돌포의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바람에 함께 나간다. 그 장면에서 유명한 이중창 ‘사랑스런 아가씨여’가 이어진다. 물론 외출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2막은 라탱 지구의 음식점이다. 무제타(소프라노)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으면’은 돈 많은 늙은이와 이곳을 찾은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마르첼로의 관심을 끌고자 부르는 노래다. 겨우겨우 외면하는 마르첼로를 향한 결정타로 무제타는 민망하게 치마를 들어 올리며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아프다고 요란을 떨며 늙은이를 쫓아내고 마르첼로에게 안긴다. 3막은 파리의 세관 성벽 중 ‘지옥의 문’ 앞이다. 차가운 새벽, 말다툼 끝에 로돌포가 집을

나가자 이곳 술집에서 무제타와 지내는 마르첼로에게 갔을 로돌포를 찾으러 온 미미.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 로돌포의 진심을 알고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중창은 너무나 슬프다. 그래도 겨울은 너무 춥고 쓸쓸하니 어떻게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후속 장면은 더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 서로 저주를 퍼부으며 또다시 헤어지는 마르첼로와 무제타의 장면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푸치니의 솜씨는 실로 절묘하다. 4막은 옥탑방을 떠난 지 몇 달 후, 미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제타의 손에 이끌려 돌아오는 내용이다. 오페라의 수많은 죽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순간이며, 힘없이 첫 만남을 회상하는 미미와 로돌포의 대화에서 가슴 찡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로돌포의 친구들과 무제타가 드러내는 진한 우정도 가슴 뭉클하다. <라 보엠>은 동시대에 유행한 사실주의(베리즈모) 오페라와 닮은 점도, 다른 점도 많다. 빨감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가난한 예술가, 동거부터 하는 사회상, 실재하는 식당인 카페 모뎬스 부근의 생생한 묘사는 사실주의와 일맥상통하지만 치정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점,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을 끝내 아름답게 포장한 점은 아무리 처연해도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외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아름다웠던 과거와 일맥상통한다.

글 유행종 음악칼럼니스트
음악 및 무용 칼럼니스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래식 감상실 무지크바움에서 음악·무용·인문학·영화 관련 강좌와 동호회를 진행한다. 저서로 『불멸의 목소리』 남성편과 여성편, 『신화와 클래식』 등이 있다.

추천 영상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실황1988
프란체스카 잠벨로(연출), 티치아노 세베리니(지휘), 미렐라 프레니(미미), 루치아노 파바로티(로돌포), 지노 클리코(마르첼로), 산드라 페체티(무제타)

음반으로 가장 유명한 <라 보엠>은 모데나 출신의 1935년생 동갑내기 스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미렐라 프레니가 노래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실황은 영상으로 두 사람의 <라 보엠>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인데, 둘 다 50세가 넘어 최전성기는 지났음에도 마치 오리지널 로돌포와 미미를 만나는 듯한 흥분감을 안겨준다.



라스칼라 실황2003
프랑코 제피렐리(연출), 브루노 바르톨레티(지휘), 크리스티나 갈라르도-도마(미미), 마르셀로 알바레스(로돌포), 로베르토 세르빌레(마르첼로), 흥혜경(무제타)

영화 감독으로도 성공한 제피렐리 프로덕션은 라스칼라와 메트(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오랫동안 채택되었는데, 더 인기 높은 영상은 2008년 메트 실황이지만 라스칼라 쪽을 골라봤다. 마르셀로 알바레스의 ‘그대의 찬 손’이 더할 나위 없는 절창이기 때문이다. 제피렐리의 극사실주의적 무대도 감동적이다. 메트의 주역이었던 흥혜경은 라스칼라 데뷔였던 이 실황에서 무제타를 불렀다.



영화 버전2007
로버트 돈헬름(연출), 베르트랑 드 빌리(지휘), 안나 네트렙코(미미), 롤란도 비아손(로돌포), 보야즈 다니엘(마르첼로), 니콜 카벨(무제타)

스튜디오 촬영으로 영화적 느낌이 생생하고 아직 30대 중반의 전성기였던 안나 네트렙코와 롤란도 비아손이 출연한다. 녹음된 음원을 사용했음에도 ‘그대의 찬 손’에서 반음 낮춰 노래한 것은 아쉽다. 무제타 역의 니콜 카벨도 인상적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인 미국의 혼혈 소프라노로, 최고 권위의 카디프 콩쿠르 우승자인데도 한국에는 덜 알려져 있다.

프랑스적 색채와 독일적 기능미를 겸비한 개성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오는 12월 16일(금), 16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가 성남아트센터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크게 돋보이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각별한 관심을 끈다. 그 첫째는 관록과 개성을 겸비한 프랑스 굴지의 교향악단, 둘째는 지난 10여 년간 독일과 프랑스 무대에서 거둔 성과들로 지휘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진 지휘자, 그리고 최근 국제 무대에서 가장 눈부신 선풍을 손꼽히며 각광받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등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마도 올 연말에 내한하는 해외 교향악단 공연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하지 않은가 싶다.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는 우리에게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의 무대인 알자스 지방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기에 프랑스식과 독일식이 융합된 독자적인 문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면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의 개성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1855년에 창단된 스트라스부르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음악 감독들의 명단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20세기 초에는 30대의 오토 클렘페러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미래의 거장으로 도약할 발판을 다졌고, 양차 대전 사이에는 노르망디 출신의 명장 폴 파레이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그라츠 출신의 명장 한스 로즈바우트가 포디엄을 장악했다. 에르네스트 부어, 알체오 갈리에라, 알랭 롱바르, 테오도어 구슬바우어 등으로 이어진 대전 이후의 라인업도 견고했다. 근래에는 독일 출신으로 특히 네덜란드에서 명망 높은 마르크 알브레히트와 슬로베니아 출신의 명장 마르코 레토나가 악단의 성가聲價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 첫 내한 공연을 성공리에 치른 바 있다. 당시 필자가 남긴 메모에 의하면, ‘여느 프랑스 악단들과는 결이 다른, 조금은 두꺼운 질감과 짙은 색감의 사운드와 기본에 충실하면서 각이 확실히 잡혀 있는 연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런 차별화된 개성은 역시 프랑스식과 독일식이 융합된 그들의 DNA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2부에서 연주한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을 위해서 일반적인 튜블러벨이 아닌 처치벨



©Jean-Baptiste Willot

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Mischa Blank

(교회 종)을 공수해 온 성의도 돋보였다. 당시 열렬한 관객 반응에 힘입어 곧바로 다음 내한 일정이 잡혔는데, 그 2020년 공연이 코로나 사태로 무산되면서 올해 다시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곡목은 비제 <카르멘 모음곡> 1번과 무소륵스키/라벨 <전람회의 그림>. 악단의 개성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인데, 이 곡들을 요리할 셰프의 솜씨도 사뭇 기대된다.

영재에서 출발한 신성들의 조우

악단은 지난해 음악 감독으로 취임한 아지즈 쇼하키모프Aziz Shokhkimov와 함께 내한한다. 1988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쇼하키모프는 지휘계에서는 드문 영재 출신이다. 지휘자 공식 데뷔가 13세 때, 무려 우즈베키스탄 국립 교향악단을 지휘했고 곡목은 베토벤 교향곡 5번과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오페라에서 비제의 <카르멘>을 지휘했다고. 이후 쇼하키모프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교향악단 부지휘자를 거쳐 20세 이전에 수석지휘자로 임명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린 것은 21세 때인 2010년 ‘구스타프 말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였다. 이후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청년 지휘자상’을 수상했고, 2016-21년에는 독일 굴지의 오페라 극장인 ‘도이체 오페라 라인(뒤셀도르프)’의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하며 독일식 수련 과정까지 이수했다. 현재까지 쇼하키모프는 런던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등 유럽 우수 교향악단들을 차례로 섭렵해왔으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도 진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무대에도 이미 데뷔했는데, 바로 지난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을 지휘하여 대호평을 받았던 것. 한마디로 세계 각지를 종횡무진하며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다크호스인 셈인데, 서울시향과의 공연을 놓쳤다면 이번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 아울러 협연자인 프랑스의 신성 알렉상드르 칸토로프도 반드시 주목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과 대상적인 그랑프리를 동시에 거머쥔 칸토로프 역시 프랑스에서 소년 시절부터 유명했던 영재 출신. 1997년 저명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인 장자크 칸토로프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기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칸토로프 역시 이미 올해 4월의 독주회와 7월 서울시향 협연(베토벤 4번)으로 두 차례나 내한했다. 특히 독주회에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기량을 펼쳐 보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바야흐로 ‘리스트의 재래’ ‘피아노의 젊은 차르’라는 극찬을 받으며 현재 국제 무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칸토로프의 무대를 놓친다면 올해 가장 큰 아쉬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레퍼토리는 그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preview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12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글 황강원 음악칼럼니스트

다사다난^{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려고 한다.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 1년 내내 전쟁이 이어지는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매조지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니까 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음악 중 캐럴을 빼놓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가 본래 그리스도교의 축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사람에게도 반가운 날이 되었듯이, 캐럴 역시 본래는 종교적 의미를 담은 음악으로 시작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며 하나의 독특한 장르가 되었다.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이렇게, 천 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품었지만 19세기와 20세기에 ‘클래식 음악’의 영역으로 들어온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운 전통, 캐럴

마티네 콘서트: 12월

영어 ‘캐럴carol’은 중세 시대 프랑스의 ‘카롤carole’에서 유래했다. ‘카롤’은 본래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춤, 혹은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처럼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를 의미했다. 즉 단순한 후렴구가 있는 종교적 노래였던 셈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가장 큰 축제가 부활절과 성탄절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카롤, 혹은 캐럴은 부활절과 성탄절 노래에 주로 쓰는 명칭이 되었고, 다시 성탄절 노래만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반영하듯 널리 알려진 캐럴 중에는 ‘오소서, 임마누엘Veni, veni Emmanuel’이나 ‘코벳트리 캐럴Coventry Carol’처럼 중세, 르네상스 시대부터 평범한 농민들이 사랑했던 소박한 노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다. 그런가 하면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이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Holy Night, Silent Night’처럼 작곡가가 새로 만든 노래도 있으며, 캐럴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합창이나 기악 작품도 있다. 또 본래 크리스마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노래가 새로운 가사를 통해 캐럴로 둔갑하거나, 19~20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흥겨운 대중적 캐럴도 있다. 종교 개혁 이후 잠시 주춤했던 캐럴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MATINÉE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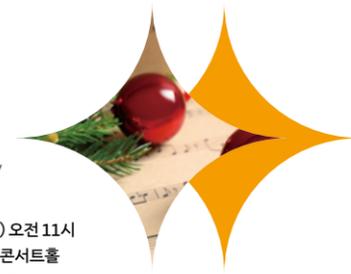
가톨릭뿐만 아니라 성공회, 루터교 등 여러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잊혀진 캐럴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이르러 교회와 종교의 틀을 벗어나 세속 음악의 차원으로 새로운 발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흐름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옛 캐럴을 발굴하고, 또 ‘푸른 옷소매Greensleeves’ 선율로 만든 ‘이 아기는 누구이신가What child is this?’처럼 옛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였으며, 작곡가들은 캐럴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20세기로 접어들면 산타클로스 같은 대중적인 코드를 집어넣은 흥겨운 대중음악 스타일의 캐럴이 쏟아져 나와서 크리스마스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캐럴의 나라, 영국

12월 15일, 올해의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데이비드 이가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테너 홍민섭의 연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양한 캐럴 음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 마지막에 있는 르로이 앤더슨Leroy Anderson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A Christmas Festival’은 캐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양한 캐럴을 접속곡처럼 하나로 엮은 곡인데, 여기에는 ‘참 반가운 신도여/어서 가 경배하세Adeste Fidelis’처럼 기원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곡도 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Joy to the World’처럼 18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캐럴도 있다. 또 ‘선한 왕 바츨라프Good King Wenceslas’처럼 중세 시대 캐럴에 새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도 있고, ‘징글벨Jingle Bells’처럼 19세기에 나온 ‘세속적인’ 캐럴도 있다.

한편 구스타브 홀스트Gustav Holst의 작품 두 곡은 전통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받았던 영국 작곡가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홀스트는 오늘날 주로 <행성The Planets>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친구인 본월리엄스와 더불어 평생 영국의 민요와 옛 음악 전통을 연구한 음악가였다.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의 시에 붙인 ‘쓸쓸한 겨울에In the bleak midwinter’는 1906년에 출판된 작품으로, 민속 음악풍의 소박한 음악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캐럴의 대표작으로 사랑받는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허름한 환경과 재림의 영광을 멋지게 비교한 이 곡은 해마다 킹스 컬리지 합창단이 크리스마스이브에 거행하는 저 유명한 ‘아홉 번의 성서 낭송과 캐럴Nine Lessons and Carols’ 예식에서도 청중이 고대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그런가 하면 옛 영국 민요 선율을 엮어 넣은 ‘성 바오로 모음곡St. Paul’s Suite’ 역시 홀스트 음악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홀스트가 오랜 세월 깊은 관계를 맺었던 성 바오로 여학교에서 이름을 가져온 이 현악 모음곡에는 16세기부터 내려오는 발라드 선율과 ‘푸른 옷소매’ 같은 옛 노래, 경쾌한 옛 춤곡이 담겨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캐럴과 크리스마스 음악은 어느 것이든, 설사 다른 가사와 화성을 입고 옛 모습에서 변했어도 오랜 역사와 축제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이 담겨 있기에 단순히 종교적 축일의 의미를 넘어선 보편적인 정서에 어울린다. 마티네 콘서트에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서적 교감을 느껴보는 것도 또한 음악이 주는 기쁨이 아닐까.



preview

마티네 콘서트
12월 15일(목)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글 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을 만나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리의 Two Seasons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Michael Craig-Martin, 1944-은 명실상부한 '영국 개념미술의 1세대'다. 변기나 안경, 전구, 컵 같은 평범한 사물들을 검은 윤곽선과 선명한 원색으로 단순화해 만든 팝아트 느낌의 이미지는 그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영국 현대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1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 CBE를 받기도 했던 그는 작가 이전에 명교수로도 이름을 알렸다. 1970년대부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20여 년간 재직하며 데이미언 허스트는 물론 영국 현대미술의 부흥을 가져온 yB young British artists 작가들을 대거 길러낸 미술계의 대부로도 명성이 높다. 세계 3대 갤러리 중 하나인 가고시안 갤러리 전속 작가인 그는 여전히 왕성한 현역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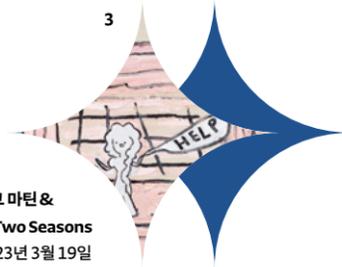
'늦깎이 할머니 작가'로 유명한 로즈 와일리 Rose Wylie, 1934-는 76세의 나이에 신진 작가로 주목받으며 10여 년 만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타 작가로 떠올랐다. '위트 넘치고 활기차며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세간의 평처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주변의 소소한 일상과 기억을 독특하고 자유로운 스타일로 그려낸다. 80대 후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와일리의 작품들을 보노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부한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될 것이다.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리의 Two Seasons>. 대중과 평단 모두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과 로즈 와일리, 각기 다른 색채로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이야기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바로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展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리의 Two Seasons>. 이전에 각각의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화제를 모았던 두 작가의 작품을 성남아트센터에서 전 세계 최초의 '듀오 전시'로 만날 수 있다.



- 1 Michael Craig-Martin, Commonplace (with headphones), 2017, Acrylic on aluminium, 200x25cm(unframed)
- 2 Rose Wylie, Queen of Pansies (Dots) 2016, Oil on Canvas 183 x 331cm
- 3 Rose Wylie, Tale of Tales, Pink Castle (Film Notes), 2017, Oil on Canvas, 183 x 165 cm, Rose Wylie EDIT



preview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리의 Two Seasons
12월 23일-2023년 3월 19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031-783-8000



영국현대미술의 거장展

2022.12.23
- 2023. 3.19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ROSE WYLIE

MICHAEL CRAIG-MARTIN

Two Seasons



열네 가지 위로의 방식

성남의 얼굴전 <위로>

10월 28일(금)-11월 27일(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사실



©최재우

1

성남의 얼굴전은 2006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째 진행해오고 있는 성남을 주제로 한 주제기획전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생태·환경 등 다각적인 도시 지형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에 대한 연구·발굴을 통해 지역의 미술 지형을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8일~11월 27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사실에서 진행된 2022 성남의 얼굴전 <위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만큼 우리 삶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은 현대인의 숙명처럼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진다. 2022년 현재 팬데믹의 장기화에 더불어 인플레이션·전쟁·고금리·고환율 등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적응하고 살아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위로慰勞'가 아닐까.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지난 11월 27일까지 진행된 2022 성남의 얼굴전 <위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함께 소통하고자 하였다.

성남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14인의 작가-강순자, 김신주, 박춘화, 박현미, 송창, 안진희, 안치홍, 안현곤, 조은희, 조창환, 주선영, 최승애, 홍영이, 황현숙-가 전해준 다양한 방식의 '위로'를 지면을 통해 다시 살펴본다.

CONSOLATION



1 성남의 얼굴전 <위로> 전시 전경
2 전시장 입구에서 관객을 맞이한 최승애 작가의 작품

최승애 작가의 <어부바> <Harmony> 등 조각 작품은 힘든 삶에 지친 이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담았다. 작품은 쿠션을 반으로 접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 같기도 하고, 하트나 입술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대적인 절제미가 강조된 형상은 단순하지만 작품의 주제에 온전히 집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소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료는 둥글고 친근한 형상과 반짝 반짝 빛나는 색감들로 작품에 담은 작가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다가온다.

2

©최재우

FACE OF SEONGNAM



1



2

조창환 작가의 <숨BREATH> 시리즈는 자연을 이루는 모든 생명체의 숨결로 가득 차 있다. 커켜이 쌓아 올린 다양한 색들과 무수히 많은 선들은 마치 호흡하듯 공기의 순환과 시간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추상적 공간감을 보여준다. 작가는 무조건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층이 살아 있으면서도 밀도감을 갖추고 숨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수 제작한 갈기 붓에 물감을 찍어 쌓아 올린 수많은 미세한 선들은 작가의 무수한 시간과 염원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작품 속 선은 단순한 표현 기법의 산물이 아닌 하나하나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다가온다.

조은희 작가의 <Dreaming drops>는 우리에게 익숙한 종이배를 모티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년 시절, 누구나 한번쯤 직접 접은 종이배를 물 위에 띄우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소환하며 미래로 이어지는 종이배는 마치 물방울처럼 공중을 부유하듯 떠다닌다. 작가는 우리 사회 현실 속 이슈들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응원처럼, 내일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염원을 종이배에 담아 띄운다.

- 1 조창환 작가의 전시 전경
- 2 조은희, <Dreaming drops>
- 3 홍영이, <당신의 동산에서, 자전거 여행>, 2022, acrylic on canvas, 10M(33.4x53.0cm)
- 4 박현미, <정원>, 2018, 혼합 재료, 72.7x60.6cm



3



4

<당신의 동산에서> <늘 푸른마을> 등 홍영이 작가의 작품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밝고 순수한 세계만이 존재하는 듯하다. 여행 중 접한 자연 풍경, 이국적인 건물들은 작가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과 단순화한 사물, 높은 채도의 색채로 연출한 공간은 현실이 아닌 동화 속 세상처럼 보인다. 앞만 보며 달려가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풍경들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환기하고 그 안에 담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처럼 즐겁고 유쾌한 작품이다.

박현미 작가의 <정원> 시리즈는 작가 내면의 세계를 집 안의 정원庭園과 연결한 가상의 공간이다. 작품은 파스텔톤 색채를 덧칠하고 긁어내는 과정을 통해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모호하고 흐릿한 느낌을 빚어낸다. 동시에 특유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감각은 화려함 속에 구상성과 추상성이 공존하며 상반된 느낌을 자아낸다. 인간은 현대 사회 구성원으로 누군가에게, 또 여딘가에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사회가 정한 시스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꿈을 간직한 채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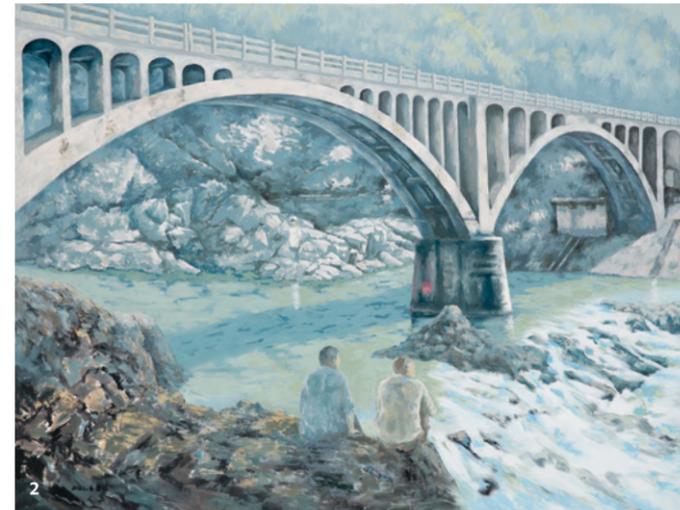
©최재우

1

안진희 작가의 <People> 시리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어떤 기호나 텍스트를 의인화한 듯 개성도, 감정도 배제된 채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모습을 통해, 개인보다 단체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복은 점차 상실되어 가는 모습을 담아낸다. 20세기 전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실존주의 사상처럼, 작가는 인간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화함으로써 그 실존과 의미를 되돌아보자고 말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처럼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안현곤 작가의 <생각하는 나무>에는 글자들이 가득 담겨 있는 인간의 옆모습을 한 나무가 있다. 작가는 독일 유학 중 작업실 근처에 있던 나무를 보고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 <With or without you>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바라본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담아냈다. 자연의 변화, 별자리와 시간의 흐름, 가장 근원적인 선, 풀리지 않은 비밀 등 작가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은 작품의 모티프가 된다. 안현곤의 작업은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다. 작가 자신이 품은 심상 전경을 유희적이고 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달하여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RELATIONSHIP



2



3

©최재우

- 1 안진희 작가(우측)와 안현곤 작가(좌측)의 전시 전경
- 2 송창, <만남-승일교에서>, 2022, 캔버스에 유화, 259.1x193.9cm
- 3 환경의 파괴 속에서도 새롭게 진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아낸 안치홍 작가
- 4 주선영, <너만 몰랐던 이야기>, 2022, oil on canvas, 72x91cm

오랜 시간 '분단'을 주제로 작업해온 송창 작가의 2022년 신작 <만남-승일교에서>는 철원에 위치한 승일교를 그린 작업이다. 승일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48년 북한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어, 휴전 뒤 1958년 한국이 마무리한 다리이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게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승일교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잘 나타내는 동시에, 남북이 함께 만든 다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소망을 담아낸다. 분단 현실에 대해 현재적 시점에서 함께 돌아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안치홍 작가의 <Shape> 속 수많은 나뭇가지들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 형태를 이룬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었을 이들은 자연환경의 파괴로 서로가 얽히고설킨 형상을 하고 있다. 작가는 환경 파괴에 대한 직설적 화법보다는 그 안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서정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연출하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나무의 이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생명체의 형태로 재구성되어 진화하는 작품을 통해, 적자생존의 법칙을 터득하고 파괴된 자연에 적응하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과 그에 대한 인간의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4

주선영 작가는 푸른 밤하늘의 숲을 작품에 담아낸다. 거칠고 투박한 붓 터치들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울창한 숲과 푸른 밤하늘의 대비 속에 때로는 공허함, 때로는 삶의 즐거움, 시련, 아픔, 슬픔, 희망, 기쁨 등 다양한 감정들로 우리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밤하늘과 숲은 고요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면의 감정을 건드려온다.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항상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처럼, 작품 속 유난히 빛나는 밤하늘 풍경은 감상자에게 조용히 위로를 전해준다.



김신주 작가의 <Wintertime> 속 겨울의 숲은 고요하지만 쓸쓸하지는 않다. 이 숲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기보다는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인도한다. 작가는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칠하고 긁어내기를 반복하고, 화면의 구성 또한 과감히 생략하거나 단순화해 의도적으로 특정 사물에만 집중시키는 등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은 감상자를 조용하고 편안한 어딘가로 인도하듯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져다준다.

황현숙 작가의 작업은 작가의 삶과 맞닿은 일상의 단편을 담아낸다. 작가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키우는 식물들, 직접 수집한 우리 전통 소품들이 작품 속에 등장해 소박하고 정겨운 감성을 전해준다. 이러한 작가의 식물 키우기는 작가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일지도 모른다. 작품 <엄마의 기억>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작가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다. 어머니의 한복과 노리개, 가족의 행복을 빌던 정화수, 비단신, 부채 등 다양한 추억의 소재들을 옥양목 위에 섬세하고 따뜻한 색채로 표현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ALLTEGLICHKEIT



- 1 김신주, <wintertime#2>, 2020, mixed media on canvas, 91x65cm
- 2 황현숙, <엄마의 꽃밭2>, 2011, handpainting on cotton, dye, 120x55cm
- 3 강순자, <허심(虛心)>, 2017, 37x37cm, watercolor on paper
- 4 박춘화, <산책>, 2021, 장지에 아크릴 채색, 162.2x112cm

강순자 작가의 <허심虛心> 시리즈는 작가가 추구하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며 마음가짐이다. 무엇인가를 담은 용도로 만들어진 막사발은 작품에선 항상 빈 채로 존재한다. 막사발의 투박하고 순수해 보이는 외형은 작품의 주제 '비우다'를 뜻하는 상징물로 '비어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무욕無慾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작품은 투박하고 거친 막사발의 표면이 손에 잡힐 듯 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반면, 배경은 이와 대조적으로 과감히 생략하거나 단색으로 처리해 작품의 주제가 더욱 돋보인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작가가 전하는 '비움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작품이다.

박춘화 작가의 일상적 풍경들은 익숙한 듯 낯설게 다가온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은 현대 사회이기에, 유유자적해 보이는 작품 속 풍경이 조금은 생소할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없는 적막한 밤의 시간은 낮보다 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일깨워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박춘화의 고요한 풍경들 또한 화려함에 가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지친 일상에서 만나는 담담한 위로처럼 손리를 거스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던 순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조각·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한편, 이들이 전하는 조형 언어를 이해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성남큐브미술관은 성남이 품고 있는 여러 의제를 현재적 시점에서 바라보고 함께 소통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팀 과장

피아노로 구현한 오케스트라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3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1년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올랐다. 브람스와 슈만의 대작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번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변주'와 '오케스트라'였다.

SEONG-JIN CHO



우선 첫 번째는 '변주'였다. 1부에서는 브람스가 작곡한 변주곡 중 최대 걸작인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 24>를, 2부에서는 슈만의 작품 중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작품으로 꼽히는 <교향적 연습곡 Op. 13>을 연주했다. 두 작품 모두 주어진 주제를 변주하며 작품을 쌓아 올리는 변주곡이다. 조성진은 '변주'임을 매순간 의식하면서, 각 변주마다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변주들 사이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하며 변주곡 장르의 매력을 놓치지 않았다.

매 순간 변화하는 캐릭터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오케스트라'였다. 조성진이 가장 공들이며 표현하려고 했던 지점도 이 '오케스트라'였다. 두 작품 모두 한 대의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사실은 오케스트라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들이다. 단순히 피아니스틱한 음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음악을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인 것이다. 조성진은 이날 이 작품들을 선택함으로써, '변주'와 '오케스트라'라는 두 작품이 가진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여주려 했고 무대 위에서 성공적으로 해냈다. 작곡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살렸다.

공연은 헨델이 작곡한 <건반 모음곡 5번>으로 시작되었다.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에 앞서 작곡가 헨델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선곡 같았다. 하프시코드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들과 현대 피아노에서만 가능한 표현들을 오가며 흥미로운 연주를 보여주었다.

헨델의 작품이 끝나고, 브람스가 작곡한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으로 넘어갔다. 우선 원곡인 헨델이 가진 화성의 흐름이 부각되며, 직전에 연주한 건반 모음곡과 연속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브람스의 색깔이 등장하면서 조성진은 각 변주마다 다른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단순한 화성이나 템포의 변주를 넘어 캐릭터 그 자체가 변주되었다. 또 무의미하게 나



PIANO RECITAL

열되어 있는 것 같았던 성부들은 조성진의 연주로 비로소 의미를 찾았다. 단순히 홀로 흐르는 성부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줌으로써 각 성부들은 의미를 찾았다.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아리아가 아니라 거대한 아카펠라처럼 느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노래하고 있었다. 2부 슈만으로 넘어오면서 조성진은 절제되었던 연주를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기 시작했다. 2부의 첫 번째 작품은 슈만의 <세 개의 환상 소곡집 Op. 111>이었다. 조성진이 연주하는 슈만은 매 프레이즈마다 비범했다. 호흡도 길고, 들어 있는 메시지도 단순하지 않았다. 이 작품은 연주자의 뛰어난 역량 없이는 단지 흘러가기만도 버거운 작품임을 알게 해주었다. 이어지는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Op. 13> 역시 마찬가지였다. 곡을 조망하는 능력이 없거나 슈만의 화성 진행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연주자에게 해석의 여지도 주지 않는 작품이다. 게다가 이 긴 시간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려

면 각 변주마다의 완성도나 텐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대곡 앞에서 조성진은 자유로웠다. 음표만 연주하는 것도 벽차 보이는 패시지에서도 선율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선율에 대한 감각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다섯 번째 추가 변주곡 같은 느린 음악에서는 이런 역량이 극대화되었다. 슈만이 '에스프레시보(표정을 풍부하게, espressivo)를 요구할 때마다 조성진은 성실히 화답했다. 유일한 흠이라면 그 에스프레시보의 연출이 조금 눈에 도드라진다는 점이었다. 연출임을 모르고 그 음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연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롱 테이크(하나의 쇼트를 끊지 않고 길게 촬영하는 것)'지만 우리가 그것이 롱 테이크임을 몰라야 비로소 성공한 롱 테이크라고 하는 것처럼.

피날레까지 화음의 균형감이 뛰어났다. 모든 성부가 균형 잡혀 들렸다. 빠른 템포와 슈만 특유의 복잡한 리듬 속에서도 각 성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 효과는 당연히 따라왔다. 하나의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슈만 곳곳엔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는 효과가 가득했다. 여러 개의 멜로디가 흐르고, 다른 시간대에 놓여 있는 성부들이 조성진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혔다. 이 순간, 슈만이 애초에 피아노가 아닌 오케스트라를 떠올리며 작곡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본 공연이 모두 끝나고 조성진이 고른 앙코르는 헨델의 HWV440 중 '사라방드'와 쇼팽 스케르초 2번이었다. 스케르초의 첫 음이 나오자, 관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곳곳에선 기쁨의 탄식이 들렸다. 반면 조성진의 연주는 차분했고,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마지막 음까지 집중하는 관객들을 보며, 조성진은 여전히 관객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최재우

탱고 피버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Tango fever

2022 리처드 용재 오닐 생년 100주년 기념
리처드 용재 오닐, 비틀리

리처드 용재 오닐, 비틀리

폴리암 라브로, 반도리

양인모, 바이올린

문태국, 첼로

그리고 음악

멈추지 않는 삶

2022.12.24 SAT 5PM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주최 (재)성남문화재단 티켓 R 8만원 S 6만원 A 4만원 | 예매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인터파크 티켓 1544-8117 | 문의 031-783-8000

ART • CURATOR • FOR



- 46 **기술과 예술**
부채야, 바람이 부는 거야, 내가 부치는 거야?
아름다운 이미지, 세상을 바꾸다
- 50 **일상에서의 디자인**
몸장
몸의 디자인을 말하다
- 54 **영화 속 클래식**
음악으로 전하는 서사
<하우스 오브 구찌>와 오페라 아리아
- 56 **BOOK**
커지는 미술 시장, 미술품 수집의 세계
이달의 책
- 58 **미술 길라잡이**
미술을 산다는 것
작품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이해하기
- 60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문화적 힘에서 비롯되다
소통의 가치에서 출발한 서울의 재생 프로젝트



부채야, 바람이 부는 거야, 내가 부치는 거야?

아름다운 이미지, 세상을 바꾸다

이미지 시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가 넘쳐난다. 어차피 이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기에 기왕이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며 한껏 놀아본다.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여섯 번째 모습은 바로 이미지다.

실제 상비나: 세월이 가면...
이미지 상비나: 누구세요?

이집트 미술은 흥미롭다. 우선, 여러 벽화에서는 내가 들어가려 시도하면 바로 튕겨낼 법한 딱딱한 조형성이 느껴진다. 즉, 텀블링과도 같은 컴퓨터 모니터다. 다음, 마치 컴퓨터 디렉터리인 양 상위 폴더의 크기를 크게 표현하거나, 컴퓨터 아이콘인 양 서로 겹치지 않게 나열식으로 구성한 점도 재미 있다. 결국 이게 다 그들만의 고귀한 세계를 비친 한 우리에게 현시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감히 너희가 여기 들어올 수는 없고, 그냥 거기서 보기만 해. 중요한 순으로 깔끔하게 다 보여줄게!'라는 식으로.

한편으로, 이집트 영정 사진도 흥미롭다. 아니, 그 시대에 무슨 사진? 그건 우리 식 표현이고, 엄밀히 말하면 영정 회화가 맞다. 이는 미라의 관 위에 붙어 있는 그의 생전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그렇다, '사실적'으로 그렸다. 따라서 벽화의 딱딱함과 거리가 멀다. 여기서 그들의 대단함이 느껴진다. 아, 그들은 사실적으로 그릴 수도 있었구나. 즉, 특정 방법론을 채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의문이 든다. 과연 실물과 얼마나 닮았을까? 회화는 사진이 아니잖아. 그런데 역시나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다. 2012년에 본 흥미로운 기사, 제목은 '일세기 포토샵' 정말 흥미로운 연구다. 여러 미술관에 있는 영정 회화와 3D 스캔 등, 현대 과학으로 복원한 미라의 모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여기서는 돌이 닮은 경우도 있고, '시체가 바뀌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통점은 바로 영정 회화가 훨씬 멋있게 생겼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영정 사진도 마찬가지다.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사자를 추억하고자 멋진 이미지를 선택하기에. 그런데 사진이 낡고 훼손되었다면? 그래도 요즘은 다행이다. 바로 그 이유로 개발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photoshop이 있기에. 소위 '뽀샵' 한다는 말의 표준어, 포토샵!

그리고 보니 이집트 영정 회화는 당대의 '뽀샵'이다. 후대에 실물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더더욱 과감한 연출도 가능했겠지.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술은 '뽀샵'의 역사다. 그리고 기술은 사람의 필요로 나온다. 여하튼, 당대에 가능한 기술로 우리는 여기에 충실할 뿐. 주변을 둘러보면 셀카를 찍고 잘 안 나온 사진을 지우는 우리들, 그래, 한 몸이다.

공통의 아름다움, 나만의 아름다움

그런데 정말 한 몸일까? 대체적인 지향성은 그렇다. 기왕이면 보다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는 욕망. 결국, 이미지는 찾기보다는 만드는 게 제 맛! 그런데 지향점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모두 다 합당한 절대 불멸의 유일무이한 단일 기준이란 도무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미술사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계속 변화하며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에 본 흥미로운 기사, 한 기자가 25개 나라의 이미지 편집자 40명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며 이를 아름답게 '뽀샵'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이를테면 피부색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슬람 여성의 히잡을 씌운 경우도 있었고, 즉, 한 사람이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유는? 다 예쁘게 보이려고! 기준은? 해당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마련! 과연 지금 여기서 그대의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십니까?

자화상은 스스로 의미가 충분한 프로젝트다. 이를테면 '자의식 과잉'은 예술적으로 영상이 풍부한 재료다. 물론 슬기로운 경영이 필요하니 이 넘치는 기운을 어떻게 표출할까? 우선, 문명을 살피우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 하나, 무턱대고 내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미술사를 보면 자화상이 넘친다. 내 거실에도 덩그러니 하나 걸려 있고.

그런데 소위 명화로 손꼽히는 자화상은 통속적인 멋진 얼굴이 아니다. 우선,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28세 때 자화상을 보면 예수님이 따로 없다. 즉, '내가 신이요!'라는 식이니 "그래, 너 멋져!" 다음, 윤두서1668~1715를 보면 눈빛이 이글이글, 기개가 넘치니 "네, 잘할게요." 다음,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비애가 넘친다. 모진 인생, 결코 쉽지 않으니 "고생 많았지?" 호호라, 당장 멋있다고 꼭 오래가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멋을 추구할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전형적인 아름다움이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 이는 벌써 누군가 만들어놓은 교과서적인 기준일 뿐이다. 물론 여기에 충실하면 대중

적인 소비에 기대며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누릴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런다고 동시대 명화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꿈꾼다. 그리고 이는 모름지기 내가 만들어야 제 맛이다. 즉, 예측 불가한 위기를 흥미진진하게 즐기는 자, 내 인생의 무림 고수여기 다 모여라. 아, 그 사진 괜히 지웠나?

이미지가 꿈꾸는 세상

꿈은 현실이 아니다. 꿈이 현실이라면 더 이상 꿈일 수가 없듯이 그건 초현실의 기대 속에서 마침내 피어난다. 즉, 틀을 깨거나 속박에서 벗어나거나 격을 파괴하거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환상적인 마법의 향기를 내뿜는다. 그 이미지가 생생하면 생활수록, 그리고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야말로 그 기운은 내 마음속에서 어마무시해진다.

이러한 꿈을 먹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 평상시 이미지 만들기에 열심이다. 즉, 기왕 어제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확보하려 오늘도 내일도 불철주야 노력한다. 이를테면 작가가 더 나은 작품을 창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듯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지가 '물질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만질 수 있는 작품이 되고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고 팔 수 있는 유통이 되면 작가는 또 다음 이미지를 꿈꾼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간다.

그런데 소위 이미지의 '물질화'가 마냥 희망찬 것만은 아니다. 과도하면 탈이 나듯이 욕망의 속도는 때로 무섭기만 하다. 이를테면 영화관 비유, 맨 앞 줄이 일어나면 다음 줄도 더 잘 보려고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모두 다 일어나야 한다. 즉, 고행의 시작이다. 마찬가지로 강남이 서울이 아니었던 그때 그 시절, 허허벌판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하나둘 뻗뻗하게 건물이 들어서고, 나아가 마치 '현 집 줄

게 새집 다오'처럼 저층 건물 허물어 고층 건물 짓는 식으로 다들 와글와글, 불쑥 높아져만 간다. 결국, 부글부글 증식하는 거품처럼 온갖 자금이 층층이 들이차니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 폭탄인 양, 문득 살벌한 느낌마저 엄습한다. 강한 이미지에는 강한 책임이 따르는 법.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는 『국부론』을 저술하며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 국가의 부가 창출된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예술은 원래 이기적인 활동이다. 묘하게도 궁극적으로 매우 이타적일 수도 있는. 여하튼 주변을 둘러보면 그야말로 수많은 이미지가 밤낮없이 경쟁을 벌인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이야기가 파생된다. 그러다 보면 그중 몇몇은 말 그대로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그렇다면 자, 과연 내 인생에선 어떤 이미지가 가장 빛나야 좋을까? 기왕이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식으로.

2003년, 미국 유학을 떠났다. 우선, 수많은 고층 빌딩이 나를 유혹했다. 그러니 마냥 달콤함이 몰려왔다. 다음, 이 건물들이 다 남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 살살 씹살함이 따라왔다. 그러나 이미지는 내 맘, 이를테면 건물 풍경은 공공재라 마음껏 찍을 수 있다. 즉, "그래, 너 크고 높다. 그렇다면 내가 더 크고 높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수많은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 모아 차곡차곡 층을 쌓는 등, 더욱 그 모양을 극화했다. 그리고 여기에 회화적인 질감을 더해 황홀경을 연출했다. 그리고 나니 달콤 씹살한 아이러니, 즐기 그만이다. 이렇게 탄생한 도시 프로젝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고래로 도시의 욕망이 끊임없이.

이러한 이미지의 '극화 방법론'이 가진 대표적인 특성 네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재 the real과 가상 the virtual의 경계'를 유희한다. 즉, 원본은 실제에 기반을 두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상

황과 맥락에 따라 시공을 섞으며 때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존재하는가?" 둘째, '환영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즉, 객관적인 사실 여부보다는 주관적인 극실재 hyperreality의 경험 자체에 빠져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경험하는가?" 셋째, '자의식 과잉'을 맛본다. 즉, 한껏 동시대의 매력에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과장법으로 비판 정신을 드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러는가?" 넷째, '데이터의 활용'에 주목한다. 즉, '그때 거기서 찍었다'는 식의 다큐멘터리적인 증거 사진과는 다르게 그동안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을 적극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필요한가?"

자고로 분명한 건,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이야기가 만나면 '좋은 작품'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문화적인 의의가 풍성하면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이미지는 끊임없이 오늘도 오디션을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감독, 기왕이면 의도에 맞게 연출하고 맥락에 맞게 조절하며 후회 없는 인생 배우 키워보자. 1996년, 가수 김원준의 노래, "Show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가 머리를 스친다. 이와 같이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지는 스스로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은 곧 꿈이다. 그래, 꿈은 원래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은 애당초 그렇다고!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2022성남중진작가전3 차승연

아버지. *Your Majesty.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are yours too.*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

2022.11.04 FRI - 12.25 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몸짱

몸의 디자인을 말하다

몸짱은 몸이 잘 디자인된 상태다.
자신을 미적·윤리적으로 세우고, 육체와 정신을
가꾸어 삶을 예술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준비하는 청춘

여러 해 전 아들이 군 복무 중일 때다. 24시간 경비 근무만 하는 부대인데, 비번일 때에는 부족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참고 기특하게도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단다. 토익, OO 자격시험, 재입학 내지 편입 준비 등, 그도 아니면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린다. 간혹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코피를 쏟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료들과 수다를 떨 땀 주로 자동차나 여자 친구 애긴데, BMW가 어떨고 랜드로버가 어떨고... 몇 기통에 엔진을 뭘 탑재했고 여자들은 무슨 차를 좋아한다는 등. 이런 한심한 청춘들?

나중에 외제차에 예쁜 여자 태우고 폼 나게 달릴 수 있으려면 지금은 죽도록 공부해서 각종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부지런히 운동해서 멋진 몸도 만들어야 한다.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시적인 투자다. 일견 스펙 쌓기는 목적 지향적으로 보이고 운동은 건전해 보이지만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인상 평가는 얼굴과 키, 몸매, 피부 등과 같은 외모에서 시작된다. 성격이나 교양 등의 내면은 나중 문제다. 특히 사회가 파편화되고 결속력이 약해질수록 각자도생의 생존 원리에 따라 자신만의 유일한 몫인 몸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된다. 몸은 최초의 자본이자 최후의 밀천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그리스 이상에 매료되어 쿠베르탱은 1894년 근대 올림픽을 출범시켰다. 엘리트 체육의 정례화와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전역에서 대중적인 체

육 운동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체조, 하이킹, 사이클링 등에 열광했다.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과 체육 진흥을 위해 '신세계체조'가 보급되었다.

오늘날은 육체적인 능력에 기반한 모델이나 운동 선수가 부와 명성을 획득하는 시절이기도 하다. 20대 초반의 파릇한 장정들이 제한된 시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멋진 몸이다. 건전한 정신은 차차 갖추더라도.

육체의 경쟁

어릴 때, 부잣집 아이들은 몸이 대체로 통통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점으로는 그냥 뚱뚱하다. 궁핍한 시절이라 말라깽이보다 통통한 몸을 건강하다고 믿었다. 신체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덕분에 '우량아 선발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유사한 행사가 있었지만, 1971년 'OO유업'이 연례행사로 만들었다. 방송인 주영훈과 바둑 기사 이창호가 이 대회에서 우량아로 선발되었다고 한다.

심사 조건으로 생후 20개월 미만에 가족(부모)이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뚱뚱한 아기'가 우량아로 인식되었다. 유아 때부터 시작된 육체의 경쟁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198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다. 이제 우량아나 뚱뚱한 몸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미스코리아 대회 역시 젊은 여성들의 경쟁이다. 이 또한 일제 강점기부터 유사한 형식이 있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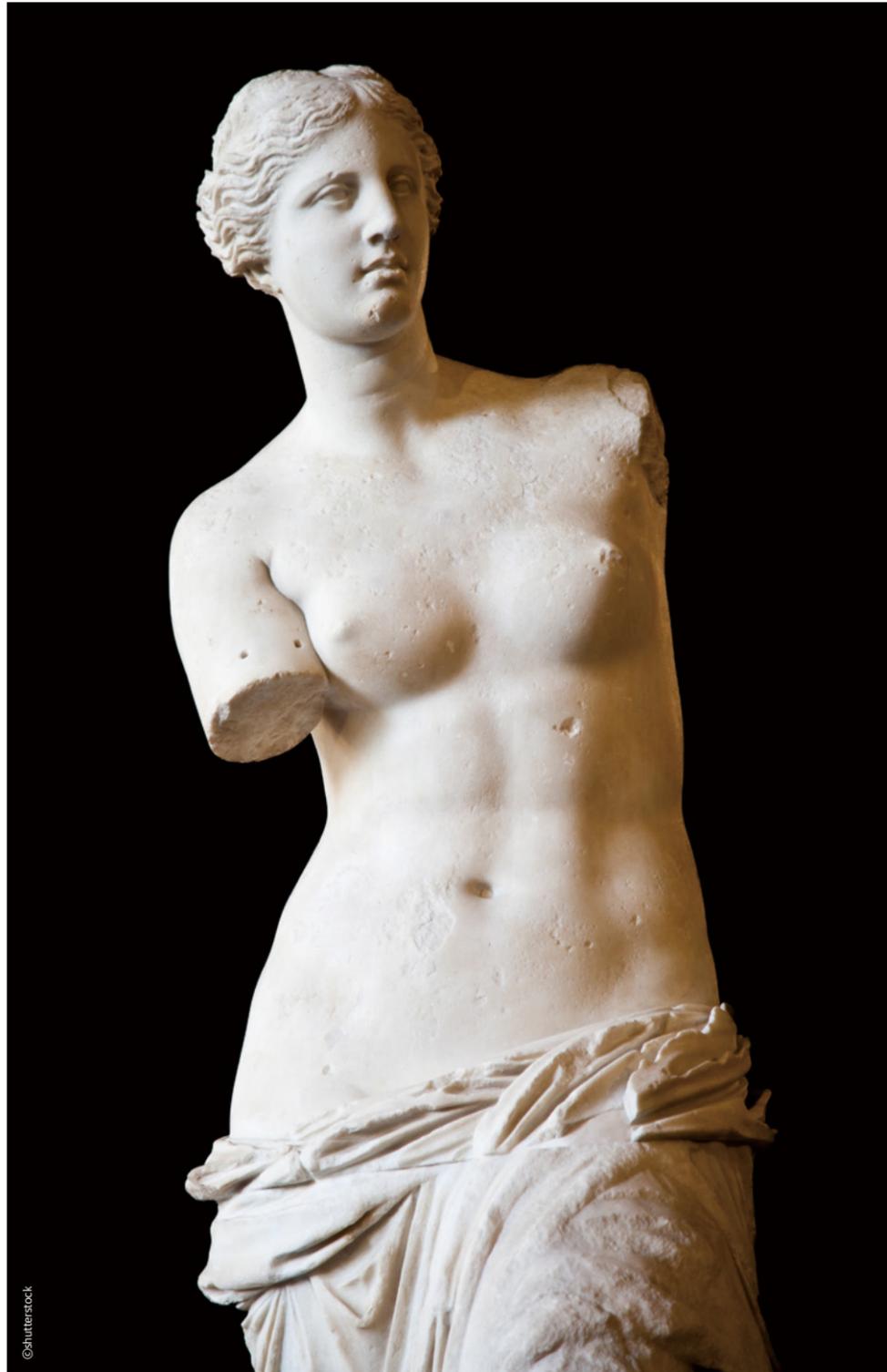
우량아 선발 대회 포스터

1957년부터 'OO일보'가 연례행사로 개최했다.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사절로서 높은 인기를 누렸으며, 입상 경력을 바탕으로 연예인이 되기도 했다. 방송에서 미인의 기준을 공표하니 여성들은 미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시장은 패션, 미용과 헬스, 성형 수술 등, 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품화했다.

서구적 관점의 육체에 맞추어진 미인의 기준, 이를 규격화·서열화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었다. 특히 몸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수영복 심사는 여성 단체의 지탄을 받았다. 잘룩한 허리에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만드는 실루엣이 선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본격적으로 'S라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평범한 여성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여성을 상품화할 뿐 아니라 석연치 않은 심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점차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요사이 PT가 유행이다. PT(physical training?) 일찍부터 군에서 썼던 용어로 유격 훈련을 위한 기초 체력 강화이자 정신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스럽다. 그래서 유격은 유격 자체보다 사람 잡는 PT 때문에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었다. 헬스장에서의 PT는 개인 훈련(personal training)이다. S라인의 미녀 비너스, 초콜릿 복근의 몸짱 다비드 같은 몸매가 되려면 매일 3~4시간 이상 강도 높은 PT를 꾸준히 해야 한다.

멋있거나 예뻐 보이기 위해 우선은 옷이나 화장품, 장신구 등에 공을 들인다. 그 다음 단계가 식단 조절과 운동이고 최후의 수단이 성형 수술이다. 자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 뜻한 바 성과를 달성한다는 근대의 이념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적인 몸 역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이상적인 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shutterstock

젊음의 지속

강남 변화가에는 한 집 건너 성형외과라고 하는데, 그중 백조성형외과라는 곳이 있다. 백조? 아하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백조가 된다는 판타지! 하얗고 우아한 백조로 거듭나고 싶어 하는 미운 오리들을 유혹하는 거다. 이 병원들의 독특한 의료 행위(디자인이라고도 하는)가 '돌려깎기'다. 허벅지 돌려깎기, 턱·광대 돌려깎기 등. 날씬하고 매끈해 지려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대를 바꾸고 태를 빼내는 것)를 위해서다. 실제로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얼굴을 리디자인(redesign)하고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아 복면으로 가리고 다니는 처자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복면을 벗은 맨 얼굴에서는 그들의 나이가 가능되지 않는다.

21세기 현대를 '감성 시대'라고 한다. 감성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감성은 이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일정한 표상을 형성하는 인식 능력이다. 감성은 시각과 청각, 촉각 등의 감각 작용에 의거하지만 시각의 영향이 단연 압도적이다. 보기에 좋으면 긍정 반응이 생기지 않던가? '뚱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했건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로 바뀌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취향과 관점, 경험과 정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미모와 관계없이 누구든 외출할 때에는 머리 빗고 면도하고 옷을 다려 입는다. 윤기 없는 머리카락, 꺼칠한 수염, 주름진 피부는 노인의 특징이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매끈한 턱을 연출해야 함은 물론, 제2의 피부라 할 옷에도 구김(주름)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인다. 보톡스 시술이나 다림질 목적은 모두 새것(젊음)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혈색 좋아 보이네. 애는 늙지도 않아"라고도 하는데, 젊음에 대한 희구, 동안 열망이 담겨 있다.

건강과 젊음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요 관심사다. 더 젊어 보이게 주름을 펴고 더 매끈해 보이게 피부 미백에 공을 들인다. 마스크에서는 '어린 피부'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이와 더불어 소년(소년)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은 K컬처, 한류 스타의 대표 주자로 자주 언급된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청년기에 이르렀지만 명칭은 여전히 소년·소녀를 표방한다. 왜 그럴까?

생산성이 지상 목표였던 근대는 '많이' '빨리'를 통해 산업 사회를 구축했으며, 끊임없이 소비하는 산업 사회는 '새로움의 미학'을 성립시켰다. '낮은 것보다 새것, 투박한 것보다 매끈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아저씨보다 청년을, 아줌마보다 아가씨를 선호한다. 노안老眼은 이월 상품이고 동안童顏이 신상新商이다. 살찌는 것도 싫지만 살 중에서도 제일 싫은 것이 '나잇살'이다.

불완전해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인간 복제 가능성도 예고되는 현실에서 우리 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미래에는 어떤 얼굴이, 어떤 몸이 아름다운 것일까? 인간의 절실한 꿈 중 하나가 젊음의 지속, 불로장생이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바이센테니얼 맨 Bicentennial Man>은 인간이 되고 싶었던 로봇의 200년간에 걸친 이야기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가사 로봇인 앤드루는 이성과 감성을 획득하면서 보다 인간에 가깝게 진화한다.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여행을 하다가 만난 과학자를 통해 인간의 피부까지 갖추면서 옛 주인의 증손녀와 사랑에 빠진다. 심지어 생식 능력은 없지만 성생활까지 가능하게 돼 로봇의 인간 되기는 일단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법정에서 앤드루는 죽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임을 승인받지 못한다. 늙을 수 있어야, 죽을 수 있어야 인간이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불완전함, 그리고 유한한 생명이어야 함을 깨닫고 마침내 앤드루는 인간이 되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앤드루에게 피부를 시술하면서 과학자가 말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불완전함에 있다. 주름살이나 덧니, 흉터 같은... 비뚤어진 주먹코, 그것이 나만의 특징이다. 불완전성이 우리를 특별하게 해준다." 질투와 자존심,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이런 인간적 결함이 인간을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역설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아름다운 존재들이기도 하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젊게 살고 싶다면 지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디자인의 목적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도 세상의 일부이니 성형 수술도 디자인이다. 그러나 성형 수술만으로는 '나'를 디자인할 수 없다. 기술이나 예술을 의미하는 고대 철학 용어인 테크네Technē는 미적·윤리적 실천을 전제로 한다. 푸코의 관점에 따르면 자기 테크놀로지technology란 "자신을 미적·윤리적으로 세우고 자신의 삶을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몸의 디자인이다.

글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

음악으로 전하는 서사

<하우스 오브 구찌>와 오페라 아리아



하우스 오브 구찌 2021
감독 리들리 스콧
출연 레이디 가가, 애덤 드라이버,
제러드 레토 외



“그 이름은 곧 부유함과 스타일과 권력을 뜻했다. 그들은 땅이나 왕관이 아니라 가족을 놓고 싸웠다.”

클래식이 많이 나오면 좋은 영화일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House of Gucci>를 보다가 문득 들었던 의문이다. 영화는 제목처럼 이탈리아 패션 명가인 구찌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 패션 산업을 취재했던 저널리스트 사라 게이 포든 Sara Gay Forden의 2001년 동명 논픽션이 원작이다. 원작이 구찌 가문의 100년사를 포괄한다면 영화는 그 마지막 20년에 초점을 맞춘다. 1978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진출했다가 다시 1995년 밀라노로 돌아오는 연대기적 구성이다. 여기서 회귀는 단지 지리적 개념만은 아니다. 달아나고 싶어도 끝끝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 운명은 파국에 가깝다. 구찌 가문이 전쟁을 벌이는 대상인 '가족'에는 이중적 의미가 숨어 있다. 제품을 만드는 재료인 동시에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기도 하다. "랄프 로렌의

매장이 영화 세트장 같고 베르사체는 록 콘서트장 같다면 구찌는 패션의 바티칸"이라는 영화 대사처럼, 구찌는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점유율을 놓고서 외부 경쟁사들과 치열한 혈투를 펼친다. 동시에 이들 가족은 내부적으로도 기업 경영권을 놓고 사사건건 으르렁거린다. 혈연을 중시한다면 정작 부자와 형제, 사촌과 부부 사이에서 내분은 끊이지 않는다. 단지 총칼이 아니라 지분율로 싸운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만 영화 후반에 이르면 그 경계마저 모호해진다. 화려하게 보이는 권력과 부의 어두운 이면은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의 거장 리들리 스콧이 즐겨 다루는 주제이기도 했다. 2017년 전작인 <올 더머니 All the Money in the World> 역시 미국 석유 갑부 폴 게티의 손자가 납치된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석유 재벌과 이탈리아 패션 명가라는 점이 다를 뿐 야심만만한 창업자와 무능

한 후손, 복잡한 가계도와 연이은 가족 불화라는 점에서 두 영화는 쌍둥이처럼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가문의 수장인 알도 역을 맡 파치노가 맡은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했다. <대부>에서 그가 연기했던 마이클 콜레오네는 가족을 잃었을 때 울부짖었지만,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는 구찌의 지분을 넘겼을 때 신체 일부라도 내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 알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찌의 세계화를 주도해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패션계의 초대 주미 이탈리아 대사"로 불렸다. 당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그레이스 켈리, 재클린 케네디 역시 구찌의 고객이었다. 원작과 영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현장 취재에 바탕을 둔 책은 가족 경영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행한 것이야말로 구찌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객관적 시각을 견지한다. 구찌

가문은 떠났지만 브랜드는 남은 것이야말로 역설적인 장수 비결이었던 것이다. 반면 영화에는 구찌 가문에 대한 풍자와 연민의 시선이 조금씩 뒤섞여 있다. 어떤 의미에서 영화는 슬픈 왕조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닮았지만 장르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점은 약점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는 매력이 있다. 흘러넘칠 만큼 듬뿍 사용된 음악이다. 구찌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청년 마우리치오(애덤 드라이버)와 아버지의 트럭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파트리치아(레이디 가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흐르는 음악은 '축배의 노래'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순박한 청년 알프레도와 파리 사교계의 여인 비올레타가 처음 만난 파티에서 부르는 이중창이다. 오페라에서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신분 차이였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구찌 가문 도련님의 사랑이 그리 순탄

치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된다. 마우리치오 역시 톰 포드 같은 외부 디자이너의 과감한 영입을 통해서 가족 기업이었던 구찌를 다국적 명품 기업으로 변모시키려고 했던 야심가였다. 하지만 뿌리 깊은 가족 분쟁은 끝내 그의 꿈을 집어삼키고 만다. 마우리치오와 함께 세대교체를 꿈꾸다가 사촌에게 배신당하는 파올로(제러드 레토)의 패션쇼 장면에서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나온다. 당장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라는 노래 제목부터 어울리지만, 가족 내부의 상표권 분쟁으로 패션쇼가 중단되는 바람에 아리아도 끝을 맺지 못한다. 구찌 가문의 변호사가 등장할 때 흐르는 주제가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나는 거리의 만능 재주꾼'이다. 여기에는 가문의 굵은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적재적소의 선곡이야말로 영화의 숨은 매력 가운데 하나다.

주인공 마우리치오와 파트리치아 부부가 파경으로 치닫는 후반부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가 흐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부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가사 없는 허밍만으로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베르디 오페라의 순박한 청년에 가까웠던 영화 주인공은 어느새 나비 부인 초초상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버리는 바람둥이 미 해군 핀커펠을 닮아가는 것이다. 파국의 순간에 흐르는 선율은 동일하지만, 인고와 자기희생을 택했던 나비 부인과 달리 구찌가의 여인은 기꺼이 복수를 감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하우스 오브 구찌>는 무엇보다도 음악을 통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는 영화였다.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비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유니버설 픽처스

커지는 미술 시장, 미술품 수집의 세계

이달의 책



최근 몇 년간 국내 미술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국내외 미술 시장의 상황부터 선조들의 소박한 손잡이잔 컬렉터, 미술 시장의 암적인 존재인 위작을 가려내는 미술 감정 이야기까지 미술품 컬렉션의 세계와 관련된 다양한 신간이 나왔다. 서양미술사에서 소외됐던 여성 작가들에 주목한 책도 함께 소개한다.

미술품 감정과 위작

미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작가는 그만큼 위작(가짜 작품)도 많다. 국내 작가 중에서는 이종섭, 박수근, 김환기가 특히 그렇다. 이들 작가의 작품을 두고는 여러 차례 위작 논란이 제기됐다.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논란은 2년여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미술품 감정 업무를 40년간 진행했던 저자는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며 이종섭, 박수근, 김환기 작품의 실제 위작 사례를 들어 미술품 감정의 세계를 소개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미술품 감정의 기본은 철저한 작

가 연구다. 위작 판별 능력을 기르는 데는 해당 작가의 작품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특징을 파악하며 많이 보는 것 이상의 지름길은 없다고 말한다. 미술품 감정에서 혼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미술 평론가나 화랑 대표, 미술품 복원·수복 전문가, 때에 따라서는 동료 화가나 제자, 유족 등도 참여해 각자의 시각으로 감정 대상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대로 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터무니없이 싸거나 출처가 모호한 그림은 구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향선 지음 | 아트박스 | 432쪽 | 40,000원

예술, 가지다

최근 미술 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 구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열렸던 <프리즈 서울> 아트 페어 현장은 관람객으로 북적였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작품들이 팔려 나갔다. 갤러리스트로 일했고 또 미술관과 기업의 관점에서 컬렉션의 방향성을 세우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작품 구매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저자가 미술의 가치와 격변하는 미술 시장, 세계 유명 갤러리 등 미술 시장의 ‘빅 플레이어’,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미술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짚는다. 저자는 미술 시장에서 투자 가치 상승과 재판매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미술 작품이 금전적 가치 외에도 감상적·장식적·사회적 가치 등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안겨주는 더 큰 가치와 즐거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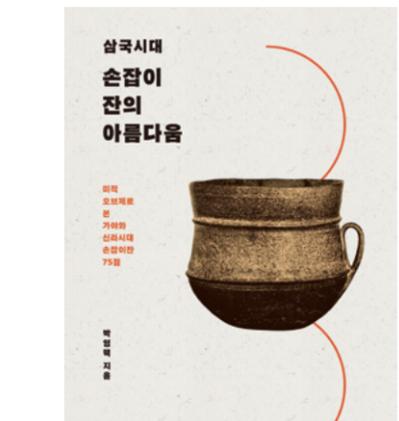
주연화 지음 | 학고재 | 300쪽 | 20,000원



삼국시대 손잡이잔의 아름다움

“작은 손잡이잔은 소박한 기물에 불과하지만 (중략) 저마다 차별화된 미감과 뛰어난 조형미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미적 오브제들이다. 그러니 어찌 이 작은 손잡이잔에 매료되지 않을 수 있을까?”(머리글 중) 미술 평론가인 저자는 어느 날 지방에 있는 한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가 작은 신라 질그릇잔 몇 점을 보았다. 그중에서도 소박하면서도 귀엽고 견고한 미감이 기품 있게 흐르는 작은 손잡이잔에 매료됐고 이후 가야와 신라 시대 손잡이잔을 모으기 시작했다. 책은 이렇게 수집한 300여 점의 손잡이잔 중 75점을 추려 감상과 단상을 정리한 것이다. 기형, 구연부(손잡이잔의 입구 부분), 손잡이, 문양, 색채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뉜 손잡이잔의 매력을 톺아본다.

박영택 지음 | 아트박스 | 408쪽 | 26,000원



우리의 첫 미술사 수업

저자가 10년간 대학에서 강의했던 교양 과목인 <여성과 예술>의 강의 내용을 구어체로 풀어 쓴 책. 주류 백인 남성 미술가 중심이었던 미술사 서술에서는 여성과 비주류 남성 미술가, 유색인 미술가 등이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19세기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여성 미술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왔는지, 미술에서 여성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됐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존재하지 않았나, 누드 이미지에 담긴 이데올로기, 행복한 어머니상, 이브와 성모 마리아, 타락한 여성상 등 소주제를 풍부한 작품 사진과 함께 설명한다.

강은주 지음 | 이북 | 392쪽 | 25,000원



글 황희경 연합뉴스 기자
사회부, 국제부, 홍콩 특파원 등을 거쳐 현재 연합뉴스 문화부에서 미술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조금은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미술을 보다 쉽게 소개하고 미술 현장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술을 산다는 것

작품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이해하기

살면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입하는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등 아주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백만 원에서 수십억, 그 이상으로 값비싼 금액의 미술 작품들을 구입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즉, 예술 창작품인 미술 작품은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 구매한 작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파리에서 H사의 멋진 가방을 사서 공항에 온다면 무엇을 내야 할까요?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미술 작품을 사 온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물론 수입목록신고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술 작품 구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적인 설비에 의해 제작된 판화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미술 작품을 팔 때에는 어떨까요? 100만 원에 산 작품을 5100만 원에 팔았다면? 우선 행복하겠지요.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으니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2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2억에 팔면 10억의 양도 차액에 따른 세금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10억의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반면 미술 작품은 부동산과는 달리 개당, 점당, 조당(2개 이상이 함께 만들어진 작품)의 양도 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일 때 양도 소득세(20%+지방세 2%, 총 22%)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외 작가 및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에 해당하고,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 양도 소득세도 판매가 1억 원 이하의 경우 90%를 필요 경비로 인정(공제)하고,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은 80% 인정됩니다.

작품을 1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구입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의 22%인 22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경비 90%인 9000만 원이 인정되어, 1억에서 9000만 원을 제한 1000

만 원의 22%, 즉 220만 원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2억 원에 팔았을 경우에는 1억까지는 9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220만 원, 나머지 1억에는 80%가 인정되어 2000만 원의 22%인 440만 원, 총 66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월급 및 사업 소득으로 1억의 수입이 있고 작품을 2억 원에 팔았다면 총 수입 3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억에 대한 세금은 따로, 그리고 작품은 별도 기타 소득으로 분리되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수입이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비율도 높아지는데 작품은 따로 분리 과세되니 더 가중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는 작품을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합니다. 즉,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해당하지만 갤러리나 옥션처럼 작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은 기타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이 작품을 구입했을 때와 법인의 구입은 조금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장식 또는 환경 미화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설치하게 될 경우 미술품의 취득 가액(2019년 2월 12일부터)이 1000만 원 이하인 것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갤러리나 옥션에서 구입했다면 세금 계산서를, 개인에게서 구매했다면 계좌 이체 증명서와 매매 계약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직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품 증여 혹은 상속 시에는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세율은 전체 상속 재산 금액에 따라 10~50% 동일하게 적용되고, 상속세 세액 산정의 기준은 전문가 2명이 정한 시가에 의거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와 같이 미술 작품은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이 없고 판매 시에도 세제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이는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죠. 이런 혜택 또는 가치와는 별개로, 미술 작품 본연의 의미는 작가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그 의미에 공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 그 본연의 의미를 떠올리며 본다면, 작품이 좀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글 김종현 아트디렉터, Artdotz 대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뉴욕 킴스⁹⁹ 갤러리 부디렉터, 퀸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ARPNY의 디렉터(2013-2015)를 거쳐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일했다. 귀국 후 아트부산 2016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미술 행사 진행은 물론 미술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출강하며 해외 공모전 및 전시 전문 플랫폼 Artdotz를 운영하는 한편,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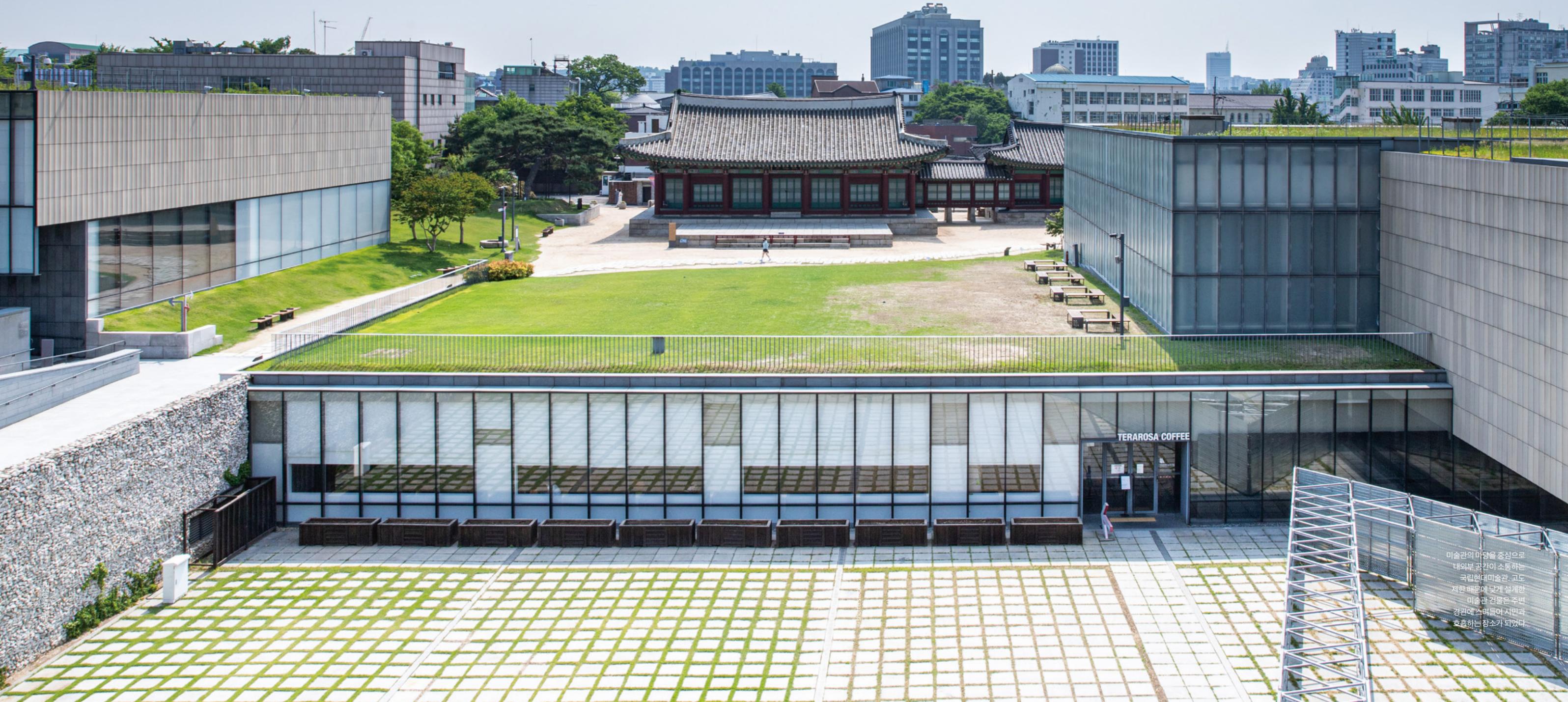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문화적 힘에서 비롯되다

소통의 가치에서 출발한 서울의 재생 프로젝트

SEOUL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파란만장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도시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의 1960년대는 황폐화된 국토를 하루빨리 재건하고 뒤쳐진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일궈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경시되고 사라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예술과 역사, 그리고 자연이다.



미술관의 마당을 중심으로
내외부 공간이 소통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고도
제한 때문에 낮게 설계한
미술관 건물은 주변
경관에 스며들어 시민과
호응하는 장소가 되었다

Copyright © 2023



건축가가 가장 중시한 가치는 ‘소통’이었다. 미술관 건물의 내부와 외부 설계는 복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전경. 붉은 벽돌의 기무사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 모던한 미술관 건물과 조화를 꾀한다
- 2 국립현대미술관 로비 전경



효율적인 성장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쉽 데 달려온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조금 돌아 볼 여유가 생긴 걸까, 2000년대부터는 서울 곳곳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소의 역사를 존중하고, 도시 내에 자연을 품으려 노력했으며,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데 기꺼이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여섯 개의 마당으로 구현한 소통
경복궁의 동쪽, 복촌 한옥마을을 방문해본 사람이 라면 그 어귀에서 붉은색 벽돌로 이루어진, 어딘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건물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다. 서울 중심에 독립적인 시설로서 미술관이 생긴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전에도 덕수궁 석조전과 경복궁 별관에 국립미술관이 설립된 적이 있었지만, 미술관은 박물관의 하부 기관이란 인식이 강

했고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여실히 남아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미완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1986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남부럽지 않은 규모로 개관했음에도 많은 미술 마니아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에도 오롯이 미술만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제기돼왔다. 그러다 국군기무사령부 건물을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1995년부터 일어났는데, 그마저도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도교의 종교 시설이었던 ‘소격전’이 있던 장소로, 조선 시대에도 그 규모는 다소 축소됐을지언정 여전히 명맥을 유지했다. 한편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일대에는 국왕의 친인척 사무를 담당하던 종친부,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 그리고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던 사간원이 자리를 잡았다. 옛 종친들이나 부마들이 이 건춘문을

통해서 출입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는 흥선대원군이 종친부를 확대하면서 관련 시설들도 대폭 늘어났는데, 그 규모는 302칸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1913년, 일본군 수도육군병원이 그 자리에 세워진다. 그 과정에서 종친부를 구성하고 있던 건물들 대부분이 사라졌다. 이후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서울대 의과대학의 제2부속 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활용되다 1970년대에 그 유명한 국군기무사령부(옛 국군보안사령부), 즉 기무사가 들어오면서 시민의 삶과 철저히 분리된 금단의 공간이 됐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종친부의 경근당과 옥첩당은 군사 정권에 의해 끝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보안사령부의 테니스장이 신축될 자리로 낙점되면서 지금의 정독도서관 근처로 이전되고 말았던 것이다. 잊혀가던 땅의 역사는 기무사의 이전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건립이 추진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발굴 조사를 거치는 가운데 옛 종친부의 건물터가 확인된 것이 계기였다. 그렇게 경근당과 옥첩당 건물이 제자리에 복원돼, 서울에 남은 몇 안 되는 조선 시대 관아 건물로서 위용을 지키고 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됐던 기무사령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맡은 민현준 건축가에 의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건축가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미술관은 이를 위한 배경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제시된 국립현대미술관의 비전은 배경으로의 미술관, 열린 미술관, 무형의 미술관, 일상 속의 미술관, 친환경 미술관이다. 건축가가 가장 중시한 가치는 ‘소통’이었다. 미술관 건물의 내부와 외부 설계는 복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은 6개의 ‘마당’이다. 미술관 마당, 종친부 마당, 전시 마당, 경복궁 마당, 열

린 마당, 도서관 마당이라 불리는 마당들이 방문객의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기무사 건물의 리모델링은 경복궁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그 높이가 12m를 넘지 못한다는 조건 속에 진행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 새로운 미술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됐다. 높게 증축하는 대신 여러 개의 건물로 잘게 나누어 마치 다도해의 섬처럼 무리를 이루도록 했으며, 건물과 건물은 6개의 마당을 통해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미술관은 배경이 되고 마당과 방문객이 주인공이란 비전이 실현된 모습이다. **시민 참여로 완성한 평화문화진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장소의 역사가 지워졌다가 최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공간은 서울 안에 또 있다. 도봉구에 위치한 ‘평화문화진지’다. 본래 탱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전차(anti-tank) 방호 시설’이었던 곳으로, 2017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평화문화진지는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좁은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서울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 이곳은 북한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길목이었고 군사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역사가 나온다. 조선 시대에 이 장소는 ‘다락원’이라는 곳이었다. 공무로 출장을 다니던 이들을 위한 원(院)이었는데 누각, 즉 다락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 전해진다. 지금은 인근의 체육공원이나 돌레길 명칭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적의 공격에 대비한 벙커도, 여행객을 위한 숙박 시설도, 도봉구 일대의 자연 경관이 만들어낸 변덕스러운 인간 역사가 지금은 그저 흥미롭기만 하다. 2004년 노후화로 인해 대전차 방호 시설이 철거되기 전 사진을 보면 평범한 여느 아파트처럼 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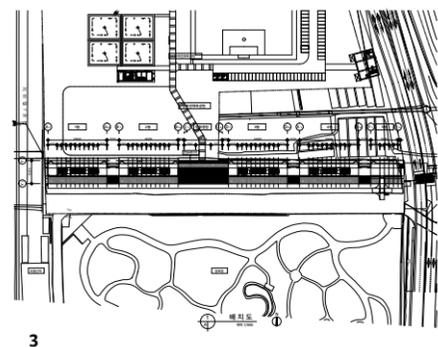


다. 벙커 시설 위로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이다. 위장 목적과 함께, 유사시에는 폭파시켜서 적군의 침투를 지연시키기 위함이었다. 군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되기도 했지만, 결국 10년 넘게 방치되며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다. 그마저도 의정부로 가는 도로가 생기면서 일부 건물은 반토막이 나버린 상태였다. 역사적 유산이라 하기도, 도시의 인프라라 하기도 애매한 무의미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 공간을 도시재생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후부터였다. 도봉구는 서울시, 관할 부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되기도 했으니, 도시의 역사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격세감이 느껴질 정도다. 리모델링 과정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민들은 대전차 방호 시설 일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은 '시민추진단'이 만들어놓은 기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제 '평화문화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이곳은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는 것과 반대로 주변 풍경은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답다. 두 개의 산이 감싸고 있는 형세가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삼엄한 군사 경비의 요충지로 여겨졌던 장소에 일어난 변화다. 그런 한편, 건축가들은 이 건물이 원래 어떤 용도였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시민들이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길 바랐다. 군사적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편의만 갖추었던 이 공간의 특수한 형태를 남기면서도, 상부를 드러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공간의 재생이란 잊히고 가린 역사의 단면에 문화라는 가치의 빛이 와 닿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노들섬의 시간, 사람과 공간을 잇다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동안, 정작 한강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자연은 시민들의 삶에서 더 멀어져만 갔다. 강변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휘감겼고, 한강에 있는 31개의 다리 중 보행자만을 위한 다리는 단 한 개도 없다. '노들섬'은 그런 한강 위에 갇혀 누구도 쉽게 갈 수



공간의 재생이란 잊히고 가린 역사의 단면에 문화라는 가치의 빛이 와 닿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1 평화문화진지에는 베를린에서 기증받은 베를린장벽 3점이 서 있다
- 2 재생 프로젝트 전의 시민아파트
- 3 대전차 방호 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공사를 위한 설계 도면
- 4 도시재생을 통해 한강의 문화섬으로 재탄생한 노들섬 전경
- 5 노들섬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육교

없는, 또 갈 일도 없는 섬이었다. 원래 노들섬은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는 도심 속 휴양지였다. 1960년대 말, 한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의 이야기다. 그러다 노들섬을 이루고 있던 넓은 모래밭이 강변 북로 건설 자재로 쓰이게 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곳을 찾은 이유를 잃어갔고, 이제는 추억도 남아 있지 않은 잊힌 섬이 된 것이었다. 노들섬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 역시 2000년대부터다. 서울시에서 이곳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섬을 사들이기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한강예술섬이니 텃밭 사업이니 온갖 계획이 난무했지만 '역대 서울시장들의 영욕이 깃든 섬'이라는 쓸쓸한 평가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노들섬 개발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물리적 재생을 계획하기에 앞서 누가 무엇을 운영할지를 먼저 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였다. 이곳에서 건축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존재한다. 건축가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건물보다는 섬을 느끼길 바랐다. 그 결과 제안된 것은 가로 5미터, 깊이 10미터의 유닛이었는데, 유닛이 모여 더 넓은 공간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구조다. 섬을 무엇으로 채울지 프로그램 구상이 먼저 나온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이었다.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 구조가 굳어지면서 한강 위의 노들섬은 시민들의 일상으로부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노들섬을 가로지르는 한강대교 위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노들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어떤 건축물의 설계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 때 문에 아예 걸어서 한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보행교를 짓는 사업이 함께 추진됐다. 그 완성된 결과물이 나와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 노들섬의 재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 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도시인 만큼, 서울의 재생은 더욱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 개발의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빼앗은

장소를 되살리는 것은 공간에 대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오래된 건물을 재사용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이 되살아날 수 있는 틈을 남겨줘야 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존이 뒷받침돼야 하며, 장소의 의미와 가능성을 시민들도 함께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서울,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예전의 경솔함과 성급함을 다 버리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곳곳의 성공적인 재생건축 사례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시민들이 적응하며 만들어 나가는 문화의 힘이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아갈 여유가 있는 서울을 그려본다.

글 김지나 작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 전반을 다뤘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문화로 도시 읽기』가 있다.

• SEONGNAM •

BEYOND

청년
예술가
창작소



브레이크 타임 BREAKTIME

강은형 김길숙 노세주 최종용

2022.11.11 (금) ~ 12.25 (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68 프로젝트
경계 너머의 예술을 꿈꾸다
청년예술창작소: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 74 문화정책
함께 그려갈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역 예술강사 지원과 네트워크
- 77 캘린더
- 78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경계 너머의 예술을 꿈꾸다

청년예술창작소: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2019년 가을, 성남 중원구 성남동 중앙지하상가에 문을 연 청년예술창작소. 이곳은 청년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공유를 지원하는 플랫폼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난 3년간 다채로운 도전과 실험을 지속해왔다. 청년예술가들은 지하상가 속 생생한 삶의 단면들을 마주하며 예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상인과 주민들은 일상 속 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콘텐츠의 확장을 통해 예술가들의 작업을 알리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소통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에도 청년예술창작소에서는 개성 넘치는 예술 세계를 구축한 청년 예술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릴레이 프로젝트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시리즈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2022>는 청년예술 창작소의 전시 공간인 스튜디오3을 활용, 시각 분야 예술가 5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최나린, 장유영, 정진민, 최아영, 조현주 등 작가별로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에 그치지 않고, 영상미디어 부문 김산 작가의 작업을 통해 작가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담아낸 영상 전시(12월 12일~2023년 1월 말)로 이어진다.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예술관과 작업 이야기, 전시 큐레이션 등 온라인 전시와 더불어, 청년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청년예술'의 생각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청년예술'이라는 틀로 규정짓기보다는 그저 예술 그 자체로 다가서고 싶다는 젊은 작가들. 지면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유영, <균열>, 2020, Acrylic Ink on Jute Fabric, 130.3 x 162.2cm

유영

소개 살아가며 겪게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페인팅과 드로잉 작업으로 담아내는 유영입니다. '타인과 관계 맺음을 통해 형성되는 균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선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하여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온전한 내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어렵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모, 혹은 잘 모르기에 의도치 않게 남기는 상처 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더 깊은 균열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대표작은 이렇게 형성된 균열이 분리와 단절을 의미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점차 선을 긋다 보니 오히려 이 선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뻗어나가면서 선이 위치한 화면을 인지하게 되고, 작품이 화면과 비슷한 명도의 흰 벽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상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영역에 대한 표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 성남과의 인연, 그리고 관심 학창 시절을 모두 성남에서 보냈고, 대학과 대학원까지도 성남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밟고 살아가는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흥사진관'이라는 팀을 통

해 성남의 역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죠. 아픈 역사를 뿌리로 시작된 도시라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상화를 작업하는 이유 확신에 가득 차 말을 뱌는 것에 경계심이 있어서, 비유하거나 에둘러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유하고 둘러말한다 해도, 사람들은 언어 이면의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작업을 통해 이러한 각자의 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때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저마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청년예술' '청년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딱딱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이라 불리는 나이에 시작했지라도, 누군가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청년예술가 지원 공고에서 볼 수 있는 나이 제한보다는 전시 경력 등으로 기준을 두는 건 어떨까요.

학력 가천대학교 회화-조소과 서양화 전공 졸업,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회화 전공 재학²⁰²¹ 개인전 Little Piece of You(청년예술창작소, 성남)²⁰²¹ 단체전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삼청동 과수원, 성남아트센터 원도우 갤러리, 성남)²⁰²⁰ 전체 공개 전회(논골대안공간 '뜰')²⁰¹⁹ 외 프로젝트 신흥사진관 <Future is Now: 8.10성남(광주 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전(성남큐브미술관, 성남)²⁰²² 외

청년예술창작소의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전시 현장



©최재우



정진민, <설정 상황 전개>, 2021, 장지에 흑연, 30.5x100cm(6 pieces)

정진민

소개 '우리'를 그리는 작가 정진민입니다. 사람들이 지닌 찰나의 표정과 그에 담긴 감정,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하여 <설정 상황 전개>는 찰나에 담긴 표정과 그에 담긴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흑연이라는 물성과 색을 한 화면에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흑연을 다룬 작업들에서 색과 같이 화면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 번번이 돌아섰다가 너무 강하게 부딪치지 않는 느낌으로 색을 소량 사용해보았습니다.

도시 성남과의 인연, 그리고 관심 성남 계원예중, 예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성남이라는 지역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직장인 성남에 위치해 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성남의 전시 공간이나 공모 소식에는 좀 더 눈길이 가죠.

인물화에 집중하는 이유 인물화 작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로 주목하는 부분이 '사람'이다 보니 작품 속에도 자연스럽게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인물, 혹은 평면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표현하고픈 방식에 가장 걸맞은 장르를 다양하게 다루려고 해요.

영감의 원천 '어디에서 본 사람인데?' 할 법한 친근한 느낌을 담으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나, 상황마다 반응하는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카메라를 일단 들이대는 편이에요. 친구들이나 가족이 뮤즈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든 다양한 얼굴을 찍어둡니다.

내가 생각하는 '청년예술' 청년 작가 혹은 젊은 작가라는 용어를 종종 듣다 보니 계속 나이를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눠야 한다면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보다는, 데뷔 기준이나 화단에 진입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졸업²⁰²⁰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수료²⁰²² 단체전 씨비전: 한 사람의 생애(빌라해밀톤, 서울)²⁰²² 5인 이상 집합금지(청년예술창작소, 성남) 성신동양화회(인사아트센터, 서울) 멘토멘티(한원미술관, 서울)²⁰²¹ 외 프로젝트 그림-그림-하며 울지(가온갤러리, 서울)²⁰²¹ 외 레지던시 국제 레지던시 I-A-M Art Berlin now Residency Program 선정²⁰²²

조현주

소개 우리 주변의 풍경을 배경으로 작업하는 조현주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듯 루틴한 일상의 시간을 작업으로 가져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고 스쳐가는 시간을 한 장면으로 특별하게 남기려 해요. 그 안에 빛과 물의 성질, 화이트라는 색이 주는 감성, 선이 주는 경계감을 녹여내려 합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선'을 이용한 자유로운 화면 분할을 통해 직선이 주는 차가움과 선으로 나뉘는 공간, 격리, 분리,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흔적> <적막한 밤>은 누군가를 읊아매는 듯, 혹은 저 밑으로 끌어내리는 듯 보이는 얽히고설킨 삶, 그 슬픈 울타리 안에서 애처로운 몸짓으로 처량하게 바람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그림을 더 그려보자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 진학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생기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됐죠.

조현주, <그들의 영역>, 2019, 장지에 채색, 140x200cm



조현주, <적막한 밤>, 2019, 장지에 채색, 106x122cm

회화를 작업하는 이유 저는 순수 회화의 매력과 힘을 믿어요. 화려한 미디어와 매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순수 회화야말로 인간이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이어온 2D 예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향 효과도 없고 3D도 아닐지라도, 온전히 평면 회화로 전달력을 가질 수 있는 힘에 이끌려 순수 회화를 주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부분 제가 겪은 시간과 감성을 시각 예술로 풀어낼 때 관객들의 내밀한 감성에 작은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품고 있는 에너지를 작품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그 표현 방법을 고민하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청년예술' 청년이라는 단어가 워낙 에너지 넘치는 느낌이라, 새로운 예술계를 이끌어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작점 같다는 생각입니다.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가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꼭 갤러리에 가야 작품을 접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졸업²⁰¹³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대학원 졸업²⁰¹⁷ 개인전 그들의 영역.숨기고 싶은 이야기(갤러리 도스, 서울)²⁰¹⁹ 휴(대안공간 눈, 수원)²⁰¹⁷ 단체전 사유의 흔적(청년예술창작소, 성남)²⁰²⁰ 한 국청년작가전(조선일보미술관, 서울)²⁰¹⁸

최나린

소개 안녕하세요, 최나린입니다. 주로 유기체적인 조각과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하여 이번 작품은 타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작업입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자와 마주하게 되고, 의지와 무관하게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순수한 자유 의지는 무엇이었는지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저 사회를 투영하는 무엇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초로 돌아가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공간을 구성해본 작업이 '수축' 시리즈입니다. 타자와의 관계 맺음이 없다면 그저 '나'와 '내 안의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고요와 적막, 어둠과 밝음, 흐름과 타오름으로 묘사되는 무의 이미지들, 아득한 무정형의 세계인 동시에 특정하기 어려운 생명의 에너지가 내재한 세계, 존재가 그저 존재로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위치 감각이나, 자-타의 상대적 개념이 작용하지 않는 태초의 공간으로 말이죠.

도시 성남과의 인연, 그리고 관심 저는 포항에서 계속 살아왔는데요, 가천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성남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대를 성남에서 지내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다 보니 이제는 성남이 너무 익숙해요. 잠시 본가에 있을 때면 계속 '빨리 돌아가야지. 언제 가지?'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예요.

설치 작업을 선택한 이유 작품을 구상하면 자연스럽게 설치 작업으로 쏠리곤 해요. 복합적인 작업을 하려다 보니 설치 쪽에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 듯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이 작업의 시작인데요,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문득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형상화되기 시작하면 작업을 시작하죠.

내가 생각하는 '청년예술' 작업들을 보면 그 접근 방식이 정말 새롭고 다양하다고 느껴요. 다만 '청년'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청년작가보다는 신진작가가 어떨까요?

협력 가천대학교 회화조소과 수료²⁰²¹ 개인전 영(청년예술창작소, 성남)²⁰²¹ 단체전 향연 - 그 어떤 사랑도 기록 해주길(갤러리 빈치, 서울) 지하상가 아케이드 프로젝트 성남미감 2021 <태양을 지하로>(청년예술창작소, 성남), AMEDEEX 가천대학교 Xa:redit(이태원 신홍시장 아케이드), 가천대학교 조소과 졸업전시 <유자 - 비추었다가는>(동대문 시대여관)²⁰²¹ 아트 매치-매시업 <골목으로 들어온 미술, 블루밍>(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성남)²⁰²² 수상 및 지원 가천미술제 장려상²⁰²⁰ 가천미술제 동상²⁰²¹



최나린, <수축의 란혼 2>, 2021, 라텍스, 먼, 젤라틴,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최아영

소개 안녕하세요. 일상의 풍경을 그리는 최아영입니다.

작품에 대하여 제 작업실에 놓인 소파의 일상을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제가 쉬고 싶을 때 자주 머무르는 곳인데, 쉬면서 몸은 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항상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쉬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곤 하는데,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정서라고 느껴요. 그래서 휴식처인 소파의 시점에서 '나를 거쳐 가는 사람들'을 상상하며 작업했습니다.

현재의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리고 싶은 것,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바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붓'이 아닌가 싶어요.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항상 의식하려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부분 작품에 항상 귀여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주제가 무겁더라도 보이는 그림은 윤택 있고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귀여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도 귀여움이 느껴지면 좋겠네요.



최아영, <500원의 위로>, 2022, 종이에 과슈, 26x26cm

예술적 영감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 경험해봤을 법한 사소한 일들을 주제로 그리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청년예술' 청년예술의 성향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있어요. 여러 전시들을 보며 기성작가들과 청년작가들의 작업, 또 저와 또래 작가들의 작업을 비교해보기도 했죠. 작가들 모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 그 성향을 정의하긴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정답도, 틀린 길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고 단언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협력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와 졸업²⁰²⁰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와 석사 수료²⁰²² 단체전 5인 이상 집합 금지(청년예술창작소, 성남), 성신동양학회(인사아트센터, 서울)²⁰²¹ 예술시장-다다(은평문화예술재단, 서울), 아시아프(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멘토멘티(한원미술관, 서울)²⁰²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²⁰¹⁸의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정

함께 그려갈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역 예술강사 지원과 네트워크

2018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이후, 중앙 주도적 지원과 정책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졌다.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성남문화재단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며 신속하게 외부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성남 지역 예술강사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역시 예술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강사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차례의 사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도출된 정책 의제들은 12월 7일 진행 예정인 성남문화재단의 2022년 문화정책 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융복합과 사회의제 연계 교육,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온라인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또 시도해야 한다. 특히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강사로 대표되는 전문 인력 그룹의 중요성이 절대적이지만, 강사들을 둘러싼 환경은 아직 개선점이 많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계약 구조의 불균형, 강사로 산정 등 기본 권익과 생계의 문제부터, 공공 영역과 협업의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이를 위해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팀은 12월 문화정책 포럼을 앞두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과 2회에 걸친 사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 파트너로서 예술강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현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9월 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제2차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역 예술강사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지원, 그리고 예술강사들의 활동을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로 출발했다. 이날의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주체로서 예술강사의 역할이다. 교육 발전을 위해 수업뿐 아니라 정책 환경에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강사들이 현업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으로, 강의 특징과 기획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강사로 지급 기준이다.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는 연구와 기획 등 선행 단계의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연구, 기획, 수업 진행, 평가 등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안정성이다. 팬데믹 이후 수많은 강자들이 거리두기로 폐강과 휴강을 반복했다. 수강생은 수업료를 환불받지만, 해당 교육을 위한 예술강사들의 사전 기획에 대한 노력과 시간, 일방적인 폐강으로 발생하는 생계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 산정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또 강사 계약 역시 정책적인 안전망의 차원에서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강사의 기초 생계 유지는 물론,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강사료 지급 기준이 시급히 정책에 반영,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강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성과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단계별 목표에 공감하는 지속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예술강사의 다양한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강사 네트워크와 재단의 협력 역시 논의되었다.

이어 9월 30일 성남꿈꾸는예술터에서 열린 제3차 라운드테이블 <지역 예술강

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에서는 2차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강사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필요성,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예술강사 주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더해졌다. 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교육의 주체 관련 문제, 협치를 위한 재단과 강사의 소통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갔다.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예술강사 참여와 강사 네트워크의 필요성, 강사와 재단의 협치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의 폭넓은 이슈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부문(재단)과 예술강사들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다. 예술강사들은 이를 위해 1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예술교육가네트워크 '스탠드'를 출범, 강사들의 연대를 통한 보다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협의와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예술강사와 재단이 서로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변화와 협치의 방법을 찾아가고, 이를 통해 성남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1 성남문화재단과 예술강사들이 함께한 라운드테이블 현장
2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스탠드'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스탠드' Seongnam Teaching Artist Network:D

오랫동안 성남에서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으로 기여했던 예술교육가들이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 예술교육과 예술강사,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그들이 그려 나갈 비전을 들어보았다.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이하 스탠드)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스탠드는 지난해 6월, 예술교육에서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공감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모임입니다. 성남에 거주하거나, 성남에서 예술교육 활동을 하며 지역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교류, 연구, 협치'라는 목표를 향해 모였습니다.

스탠드는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과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남 지역에 특화된 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교육가뿐 아니라 지역 문화재단과 기관, 예술교육을 받는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남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스탠드의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지역 현장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주체성과 역할의 다각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교육가(Teaching Artist, TA)들이 교류하고 연구하고 돌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스탠드는 이러한 배경 아래, 2021년 6월 성남꿈꾸는예술터에서 그 준비를 시작했고 이후 연대의 필요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예술교육에 대한 생각에 공감하는 TA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스탠드에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시나요?

첫째, '연대를 통한 우리', 소통과 돌봄입니다. 분절된 개인들의 교류, 정보 공유, 서로 돌봄 등 예술교육가의 현실과 관련된 폭넓은 문제를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둘째, 예술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는 연구입니다. 지역을 읽는 예술의 눈, 미래를

상상하는 교육의 마음으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활동을 함께합니다. 성남 문화 예술교육의 다양성, 예술교육가의 변화와 전환을 추구합니다.

셋째, 건강한 문화예술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기관의 조력자이자 견제자로서 협치를 이루는 파트너가 됩니다.

스탠드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지요?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에 매월 1회 이상의 모임·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성남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대-협치라는 담론을 형성해온 스탠드는 드디어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총회를 통해 회장(윤용훈, 어반아츠프로젝트 대표) 및 7인의 운영위원과 2인의 감사를 선출했고, 성남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성남문화재단 개최 라운드테이블 <지역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예술강사로 살아가기>에 참석하여 현장의 여러 고충을 전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스탠드의 견해를 12월 7일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포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10월 26일에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오픈 세미나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연결하시겠습니까?>를 통해 연대와 협치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여는 한편, 12월 10일에는 스탠드를 비롯한 성남 문화예술교육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크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네트워크 파티는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자리인 동시에 성남 곳곳에서 실행 중인 각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미래의 예술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입 및 문의 : 네이버카페 SNTANETWORK | 인스타그램 @stan.d2022 | 이메일 snedu2022@naver.com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미디어올 성남아트리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성남문화재단 기획공연-전사-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남시립합창단 'G.Rossini:Stabat Mater' (19:30) 이진 피아노 독주회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친구들의 FUNFUN한 예술여행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코요태 콘서트 <LET'S KOYOTE!> (17:00)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 콘서트 (17:00) 콘서트 페스티벌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국립합창단 송년나눔음악회 <혼민정음> (18:00) 알말브라기타양상블 정기연주회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성남시여성합창단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성남시향: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19:30)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의밤 (19:30)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오페라 <라 보엠> (19:30) 분당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오페라 <라 보엠> (15:00)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친구들 (17:00)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물고기> (11:00, 14: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물고기> (11:00, 14: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더 스트링스 정기연주회: 베토벤 전곡 시리즈 (19:30) 예술영화관 <인사이드 르윈>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성남시립국악단 송년음악회 (19:30) 크리스마스 지브리 탭고 (20:00) 예술영화관 <디터람스> (14:0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장편 시사회<세이레>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마티네 콘서트 예술영화관 <파리의달달라> (16:0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단편 시사회 <찾꼭지 3차대전> <정서,정사> <그리고 집>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19:30) 예술영화관 <내 사랑> (14:0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장편 시사회 <사랑의 고고학>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 뮤지컬 <변개맨> : 우주최강 변개상총사 (11:00, 14:00, 16:30) 파라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17:00) 연극만원 <그놈은 예뻐다> (14:00, 18:00) 뮤지컬 <시블링, 시블링> (14: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뮤지컬 <변개맨> : 우주최강 변개상총사 (11:00, 14:00) 연극만원 <그놈은 예뻐다> (14: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론 브랜트의 <재즈크리스마스>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거미 콘서트 <Be Origin> (18:00) 리처드 율재 오늘 송년 콘서트 <신물> (17:00) 뮤지컬 <바다 탐험대 옥토넷> (11:00, 14: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거미 콘서트 <Be Origin> (16:00) 전국나도 스타 음악회 (19:30) 뮤지컬 <바다 탐험대 옥토넷> (11:00, 14: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제3회 한국영화음악콘서트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뮤지컬 <엘리자벳>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뮤지컬 <엘리자벳> (14:00, 19:00) 성남아트센터 송년음악회 (19:3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지역예술가교류전 2 <Break time>	11월 11일~12월 25일	상설전시실
성남중진작가전 3 : 차승연 <아버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	11월 4일~12월 25일	반달갤러리
성남의 얼굴전 <위로>	10월 28일~11월 27일	기획전시실
<마이크 크레이그 마틴 & 로즈 와일러: Two Seasons>	11월 8일~11월 17일	기획전시실

갤러리808 전시명

전시명	전시기간
2022 성남아트페어	10월 27일~11월 5일
제36회 성남문화예술제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1월 8일~11월 17일
모란현대-전통미술대전	11월 18일-11월 27일
제36회 성남문화예술제 미술협회전	11월 29일~12월 8일
제32회 현대염색작가협회전	12월 9일~12월 18일
변영혜 개인전	12월 9일~12월 18일
제14회 성남위타아트전	12월 9일~12월 18일

※ 전시 관람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2022년 성남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의 대응'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2 성남 문화정책 포럼>이 12월 7일(수) 오후 1시 40분~5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디어홀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은 '문화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의 대응'이라는 주제 아래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과 문화정책> 총론을 시작으로, 박지훈 성남미디어센터장의 <지역과 미디어: 성남미디어센터 10년 회고와 전망>, 윤용훈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대표의 <지역과 예술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와 문화예술교육가의 역할> 발표가 이어진다. 포럼은 이전에 진행된 라운드테이블(5회)과 사전 포럼(3회)을 통해 다양한 활동가들이 심층 토론을 거쳐 선정한 주제를 발표하고, 이를 토론하는 일종의 정책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립되며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성남을 비롯한 지역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며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영화의 미래를 만나다,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 시사회



성남문화재단이 제작지원한 독립영화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2년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시사회가 12월 14일(수)~16일(금) 3일간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에서 진행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작품성이 뛰어난 독립영화와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는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진행, 국내외 유명 영화제 초청과 수상 성과를 이어가며 국내 독립영화 제작 저변 확대와 신인 감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0~21년 지원작인 장편 <세이레>(12월 14일 오후 7시), 단편 <젓꼭지 3차 대전> <정서, 정서> <그리고 집>(12월 15일 오후 7시), 장편 <사랑의 고고학>(12월 16일 오후 6시)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각 작품 상영 뒤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문의 :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2021년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시사회 현장

